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2024.06.17-23

No. 759



K-공감

지진 발생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김 수출 1조원 이끈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 가보니



‘K-실크로드’ 향해 큰 걸음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제28회 보훈콘텐츠 공모전

다함께 보훈해

콘텐츠로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

공모부문

영상 · 디자인 · 문예 · 시활용 · 캐릭터활용

접수기간

2024. 6. 3.(월) ~ 8. 30.(금)

공모주제

독립, 호국, 민주, 공익수호 등 보훈 관련 주제

당선작 발표

2024. 11월 초

접수방법

누리집(보훈콘텐츠공모전.kr) 또는 우편접수

시상내역

총 120점 시상(총 상금 6,560만원)

참가대상

국민 누구나(개인 및 팀)

문의사항

☎ 070-8080-5411

📧 @보훈콘텐츠

📷 @bohun_contest



어쩌다 전문가

내가 아는 한 남자는 명문대를 졸업했다. 눈이 높아 중소기업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대기업에는 지원하는 족족 떨어졌다. 그렇게 백수로서 충실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선배가 창업한 교육 관련 회사에 합류했다. 그의 역할은 다름 아닌 취업 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첨삭!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백수였던 그가 돌연 남의 자기소개서에 훈수를 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전문가가 판을 치는지 알게 된 동시에 본인을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을 향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게 됐다. 요리 전문가라며 식발한 사람에게 ‘혹시 그냥 탈모 아닐까?’, 명상 전문가라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내가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얼마 전에 출간한 책과 관련된 강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난 글을 쓰는 사람일 뿐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더러 강연을 하라니. 사람들 앞에만 서면 겨드랑이에서 땀이 폭포처럼 흐르고 마이크만 잡으면 어미를 찾는 새끼 염소처럼 목소리가 떨리는 나더러 강연을 하라니! 이런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뭔가 통달한 척 떠드는 이중적인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도서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라며 출판사에서 특별히 부탁해왔기에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강연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던 중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내게 출판 삽화 작업이 맡겨졌던 옛일이 떠올랐다.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했지만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형편없었다. 친구는 부끄러워하다 못해 괴로워하는 나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한테 일을 맡기고 돈을 주는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라며 격려를 전했다. 그 말이 진짜일까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도 잠시. 그림을 그리고 돈을 받고, 또다시 그림을 그리고를 거듭하며 돈을 받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괴로운 마음이 시나브로 사그라들었다. 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실력이 늘어 제법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게 됐다.

그래,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강연할 기회가 생겼다는 건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와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뜻일 테니 이참에 발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터이다. 하루라도 빨리 창피해야 하루라도 빨리 성장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출판사에 강연을 수락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서둘러 대본을 작성했다. 강연이라는 세계에 이제 막 발을 들인 비전문가이니만큼 어설픈 티를 숨길 수 없겠지만 그림에도 마음만은 전문가처럼, 준비했던 말을 줄줄 읊을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대본을 달달 외워야겠다. 줄기차게 떠드는 내 모습을 본 청중이 ‘혹시 그냥 수다쟁이 아니야?’ 하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정도로 말이다. **☐**



이주윤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다.
어쩌다 보니 맞춤법을 주제로 한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
국어사전 속에서 온종일
헤매는 일이 싫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체질인 듯하다.

두 개의 현이 빛어내는 올림

고려가요로 알려진 '청산별곡'에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라는 가사가 나온다. 그만큼 신비한 선율의 해금(奚琴)은 천년 세월을 넘어 한국의 정서를 상징하는 악기로 여겨졌다. 때론 구슬프고 때론 경쾌한 해금 연주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해 다른 나라의 영화와는 다른 독특한 차별점을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칠현악기(현을 활로 마찰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중 명주실을 꼬아 만든 두 개의 줄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해금은 서양의 7음계 소리를 모두 내면서 긴 음을 연주할 수 있어 관악 편성에 들어가기도 한다. 해금 명인 강은일 교수(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해금은 현악기지만 음악상 전통으로 봤을 때 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서 관악기에도 속한다"고 말한다.

해금은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준다. 현대에 들어 해금이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이유다. 해금의 두 줄은 낮은 소리를 내는 '중현'과 높은 소리를 내는 '유현'으로 이뤄져 있다. 애뜻한 해금 연주를 듣다보면 한(恨)을 이렇게 잘 표현한 악기가 있을까 여겨진다. 강 교수의 연주는 25년여 전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공연에서, 그리고 최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들었다. 기품있는 강 교수의 연주는 '지영희류 해금산조'의 애절한 선율과 함께 한결같은 올림을 전해준다. **K**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6.17-23

No. **759**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6월 17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이주윤

'어쩌다 전문가'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두 개의 현이
빛어내는 울림

06

커버스토리

중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협력 강화하고 'K-실크로드' 첫발

한·카자흐스탄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핵심광물 공급 강화

정책 돋보기

18

알쓸정책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 확대 외

22

정책 돋보기

마약·자살·난임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집중 투자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
많이 쓸수록 비싸진다

25

돈 되는 정책

디지털 관광주민증





38

26

안전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위기경보 '경계' 발령

28

포커스

사·도지사도
재난선포 가능

31

이 주의 키워드

핵심광물

32

이슈

"의료계 집단 휴진은 진료 거부 해당"

36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7명
"학교 가는 것 즐거워"



52

38

K-피플

'제13회 수산인의 날' 은탑산업훈장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

42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신소재·신약 품은
바닷속 작은 우주
'열수공'을 찾아라!

44

어피티가 본 MZ 생각

"외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47

정책현장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 가보니

50

문화현장

국립고궁박물관
비밀 공간이 열렸다



56

52

작은 영웅들

노래하는 딸 위해
무릎 꿇은 엄마

55

청룡이의 정책툰

개인투자용 국제

56

여행이 있는 주말 한국관광 100선

춘천시 남이섬

60

신기율의 마음 상담소

"일도 삶도 참을 수 없이 지루해요
사라진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62

함께 즐기다

100만 그루 수국 섬으로 초대 외

피플 -'스타워즈' 시리즈 통해
할리우드 진출한 배우 이정재

64

독자 공감

에너지 협력 강화하고 'K-실크로드' 첫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0일부터 15일 까지 이어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을 통해 K-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했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2022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이어 세 번째 발표하는 지역외교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세 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첫 번째로 국민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플랜트 사업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K-실크로드 구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환대를 받으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곧바로 1시간 40분에 이르는

정상회담을 가진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기존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0억 달러 규모 사업 수주 기대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온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가스공사 등 양국 기업 간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언급했다. 이들 두 합의를 포함해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비료 플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 합의서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과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플랜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에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바 있다.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는 2018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준공한 시설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한다. 연간 약 3만 8000톤의 폴리에틸렌과 8만 1000톤의 폴리프로필렌이 생산돼왔다. 그러나 2023년 현지 운영사가 플랜트를 운영하던 중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플랜트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단계 기술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2단계에 대한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트 건설 사업 등을 통해 올릴 성과는 60억 달러(약 8조 25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에 체결된 MOU를 통해 이들 금융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면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윤 대통

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환영한다”며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TIPF 체결로 양국 간 산업·무역·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 교역·투자 환경이 마련됐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도 언급했다.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

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가바트 인근에 조성돼 약 6만 4000명을 수용할 알카닥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MOU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교역·투자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전반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한·투르크메니스탄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된 것이다.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시 간 체결한 MOU를 통해 양국은 각종 인프라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정책, 제도, 프로젝트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세미나 등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 중아시아 외교전략 'K-실�크로드'

협력의 비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중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중아시아 지역 실현에 기여

지역적 범위

카자흐스탄

에너지·인프라, 미래 모빌리티 협력

키르기스스탄

풍부한 수자원, 관광 협력

타지키스탄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

투르크메니스탄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건설 협력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교육 협력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Resources 자원 협력

ODA 개발 협력

Accompany 동반자 협력

Drive 체계적 추진

협력의 원칙

동행 공고한 신뢰에 기반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교류를 추진

융합 상호 강점을 지닌 자원을 융합해
새로운 협력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창조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K-실�크로드의 새로운 협력모델 창조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1일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를 통해 우리 기업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스마트시티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며 엔지니어링, 투자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전망이다.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 속도 높여야
6월 11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을 시작으로 양국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할 일이 참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양국 경제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운송·해운 분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월부터 양국을 연결하는 화물기 운항이 시작됐고 앞으로 여객기 직항 노선도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항공당국은 이번 국빈 방문에 앞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운항 규모를 증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그

자료 외교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할 일이 참 많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양국 경제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 개요



자료 대통령실

간 여객기와 화물기를 합쳐 양국 항공사가 각각 주 2회 범위에서 운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객기 주 3회, 화물기 주 2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아시가바트의 거리가 크게 줄어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를 통해 유럽 중동과 해상 교류도 가능하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 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해양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미 카스피해 연안의 발칸조선소에서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선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다목적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하늘길과 바닷길을 함께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무엇보다 이번 순방에서 강조된 것은 K-실크로드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순방 전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줬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2년 수교한 이래 30여 년 동안 협력을 넓혀왔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천연자원만 해도 카자흐스탄에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는 금,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수의 희귀금속이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는 2차전지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를 비롯해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다량 매장돼 있다.

성장 잠재력도 높은 지역인데 중앙아시아 5개국의 총인구 8000만 명 중 14세 이하의 인구 비율은 30%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는 최근 연평균 5%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도 생산기지를 중앙아시아로 옮기고 있고 주요국 정상회의

?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정례 다자협의체다.

▶ 투르크 최고지도자의 국견(國犬) 선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10일 열린 국빈 만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양치기 개’ 알라바이 선물하며 “윤 대통령 동물사랑에 감동”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6월 11일 만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를 선물받은 것도 그중 하나다. 알라바이는 덩치가 크고 체력이 좋아 유목 생활에 적합한 양치기 개로 알려져 있다. 수도 아시가바트에는 6m 높이의 알라바이 동상을 설치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일요일을 ‘알라바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등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알라바이의 위상은 매우 높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알라바이를 선물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앞으로 동물보호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주셔서 매우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한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6월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강하고 용감하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면이 알라바이와 닮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빈 만찬을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은 윤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이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빈 만찬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부인 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가 참석했는데 평소 투르크메니스탄 영부인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년 가족행사에서 잠시 TV에 모습을 보인 것이 큰 화제가 될 정도다. 대통령실은 “부부가 함께 만찬에 나온 것은 이번 방문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만찬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 악기로 ‘젊은 그대’, ‘만남’ 같은 한국 가요가 연주되기도 했다. 귀한 손님에게 송아지를 대접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전통에 따라 네 종류 송아지 요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 잇따라 열리는 중이다. 한국 역시 2022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5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향후 30년의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워진 K-실크로드에는 실크로드와 고려인 동포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문화적 유대에 미래를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동행’하고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기업·국민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를 통해 자원 협력, 개발협력, 동반자협력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러 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 2023년 서울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차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2023년으로 16번째를 맞은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5년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북한 핵문제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줬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와 면담

윤 대통령은 6월 11일에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면담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전임 대통령으로 현재 대통령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부친이다. 2022년 11월 상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에 재임하던 시기에 시작된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 사업과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두 건의 합의서 성공 이행을 위해 최고위 레벨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추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부부 동반으로 친교 오찬을 가졌다. 오찬 자리에서는 양국 간 보건 협력,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문화·인적교류가 양국 미래 세대를 더욱 강력하게 연결하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언론 반응

“대한민국은 각별한 유대관계의 나라” 국민 방문 환영 보도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일간지 '투르크메니스탄(현지어 판)'에 실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 방문 기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환영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일간지 '투르크메니스탄(현지어 판)'과 '뉴트럴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어 판)'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방문'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두 신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민 방문에 대해 “양국 간 호혜적 파트너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양국 최고위급의 활발한 교류를 명확하게 선보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은 고대부터 교류해온 각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는 동반자”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국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주요 유망 분야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며 “양국 앞에는 녹색성장,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기회가 놓여 있다”고 전망했다.

두 신문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GPS)’의 가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2025년은 유엔이 선포한 ‘국제 평화와 신뢰의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문제가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신문은 기사 말미에 “윤 대통령의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 나아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핵심광물 탐사부터 생산까지 우리기업 우선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1일 오후 중앙아시아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방문 첫날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카숨-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주재 친교 만찬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6월 12일에는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었

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산유국인 동시에 전 세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우라늄을 비롯해 크롬과 리튬 등 광물 100여 종을 생산하는 자원 부국이다.

윤 대통령은 6월 12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뒤 협력을 이어왔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관련 MOU 37건 계약

양국 정상은 먼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날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개발·생산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등 총 3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는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생산 등 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생산 등 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우선 참여를 주 내용으로 한다. 주요 핵심광물 매장량 순위를 보면 카자흐스탄은 크롬이 1위, 우라늄이 2위, 아연이 6위, 구리가 12위일 정도로 자원 부국이다. MOU에는 리튬, 크롬, 망간, 희토류, 코발트, 텅스텐, 구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2일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협력 넘어 동반으로”... 한국, 카자흐 인프라 고도화에 핵심 역할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6월 12일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카숨-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고 한국은 광물자원의 가공 기술과 함께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된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전반에 걸친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중앙아시아 순방에 함께한 우리 측 경제사절단이 자리를 빛냈다. 경제사절단으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백한솔 SK에코플랜트 부사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경수 현대건설 상무, 정용은 HD현대인프라코어 상무, 최원규 LS이사, 문병권 코오롱 상무 등이 함께했다.

선 참여를 주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핵심 광물 외에도 전력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력 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

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알마티 순환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로’와 ‘심켄트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매
우 성공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
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 사례
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스 처
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
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
업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K-실크로드’, 북한 비핵화 지지 확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양국
수도(인천~아스타나) 간 직항 노선
이 다시 열린다. 카자흐스탄 국적
사인 에어아스타나는 6월 15일부터
아스타나~인천 구간 운항(주 2회)
을 재개한다.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양국 스포츠 연맹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대 중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에 대한 지지
도 확인했다. K-실크로드는 우리
기술 역량과 중아시아의 풍부한

카자흐스탄 동포 간담회

“고려인 동포들이 양국 이어줘… 전통 지키려는 절실함 뭉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첫 일정으로 고려인 동
포 등을 만나 “카자흐스탄에 한국을 알리고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준 동포 여러분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월 1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내 한 호텔에서 120여 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여기 있는 동포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37년 겨울,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우리 동포들은 문자 그
대로 개척자였다”며 “맨손으로 판 토굴에 몸을 의지하면서 영하 40℃의 추위를 견뎌고
낯설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린 고려인 동포들은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존중
받으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각지의 동포사회와 본국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 고려
인 단체와 또 한국 내 고려인 단체 간에 소통을 더욱 증진하고 카자흐스탄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네트워크 형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관계의 발전
이 동포 여러분들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으로 중앙아시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며 지리적 요충이자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주목받아왔
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
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12일 열리는 정
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 “중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이라며 “중앙아시아와 함께 자유·
평화·번영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 관람

양국 예술인·고려인 합동 공연 감동의 무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현지 예술인들과 고려인들이 함께 한 문화공연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칼리베크 쿠아느쉬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에 참석해 양국의 정상급 예술인들과 고려인이 빚어낸 합동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카숨-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연은 양국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서 전통음악, 클래식, 가곡 뿐만 아니라 재즈, 발레,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2008~2009년 방영해 한국 드라마 중 사상 최고 시청률인 80%를 기록한 TV 드라마 '주몽'의 배우 송일국과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즈 자스카이라토바가 공동 사회를 맡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연에는 재즈보컬 나윤선, 피아니스트 박중훈, 소프라노 손현경, 테너 이영화, 베이스 임철민 등 한국의 최정상급 음악인들이 출연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국민 성악가 마이라 무하메드크즈, 고려인 4세 뮤지션 로만 킴, 아스타나 발레단과 고려극장 예술단 등 한국·카자흐스탄 예술인과 고려인 100여 명이 합동으로 출연했다.

카자흐스탄 국립 예술단은 축제를 시작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 '토이바스타르'로 공연을 시작한 후 '고려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 고려인 동포를 주축으로 창립된 고려극장 예술단은 소고춤과 부채춤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한국 예술인들은 클래식과 재즈 공연으로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공연이 끝난 후 큰 화환을 선사해 두 나라 예술인을 격려했다.

공연이 펼쳐진 드라마극장 로비에는 카자흐스탄 고대 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황금인간' 복원품과 전통 이동식 가옥 '유르트'가 전시됐다. 대통령실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문화적 상징인 황금인간과 유르트 등을 특별 전시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칼리베크 쿠아느쉬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앞서 카숨-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평야의 황금'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유르트(yurt)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이동식 주택을 말한다. 원형의 나무 틀 위에 펠트(모포)를 씌우고 밧줄로 묶어매는 형태로 쉽게 조립하고 단시간 내에 해체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황금인간

1969년 카자흐스탄 이시크시 계곡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황금을 두른 유해가 발견된다. '황금인간'으로 불리는 이 유해는 기원전 4~5세기경 이 지역에 거주한 사카족 출신으로 황금으로 장식한 갑옷을 입고 고칼형 관을 쓴 채 4000점에 달하는 황금 유물과 함께 발견됐으며 카자흐스탄 고대 문화의 상징으로 꼽힌다.

자원을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K** 강정미 기자

윤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영 매체와 인터뷰

“카자흐스탄은 세계적 비핵화 모범국… 에너지·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국영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현지어 판)'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브(러시아어 판)' 등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매체들은 6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2면에 걸쳐 특집 인터뷰를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세계적 비핵화 모범국가”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온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2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대해선 “양국이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제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나아가 핵심광물, 과학기술, 환경, 농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지향적 분야로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나?

6월 12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양국이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제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나아가 핵심광물, 과학기술, 환경, 농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지향적 분야로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양국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를 넘었다.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었던 요인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에 비해 50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카라바탄 복합화력, 알마티 순환도로 등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통해 두터운 신뢰 관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정책 환경에 맞춰 국가 AI 발전 전략, 빅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방안, 정부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략 수립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한국 ICT 분야의 성공 경험과 양국 간의 굳건한 첨단기술 협력이 카자흐스탄의 경제 변혁과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군축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지도력은 카자흐스탄 정책의 특징 중 하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카자흐스탄은 냉전시기에 수백 번의 핵실험이 이뤄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세계적인 비핵화 모범국가다. 한국도 비핵화와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반복된 결정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최초로 2010년 아스타나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했다. 오는 9월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중앙아시아 최대 만화축제 '코믹콘'에선 한국홍보관을 운영하고 K-팝 공연과 전통공예 체험행사도 같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박물관은 2025년부터 중앙아시아 특별전을 열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문화유산을 한국 국민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와 양국 국민들의 높은 여행 수요를 반영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인천·아스타나 간 직항편이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고려인 동포들이 한·카자흐스탄 간 협력과 유대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2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언어, 문화, 생활습관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들과 한국 내 고려인 동포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고려인 차세대 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

10년 전 사증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했다.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첨단분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송출금 신규 지정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 곳곳에서 뚝다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이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상생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장금이 결연은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한 것이다. ‘장금’은 전통시장의 ‘장(場)’, 금융회사의 ‘금(金)’을 합친 말이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

연을 맺었고 결연 금융회사는 영업점에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설치해 총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또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뜻을 같이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도 참석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제로 전환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물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전국상인연합회장의 추천으로 금융보안관이 된 시장상인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 활동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서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에는 은행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과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좌석주문시스템(테이블오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하게 적거나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주소를 몰라 지원이 어려웠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준주택에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과 주

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전입신고 시 작성한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 형태로만 관리된다. 주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5931곳 현장 지도·검사

소방청이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검사에 나선다. 여름철 고온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화재·폭발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유튜브 등에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안전불감증과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을 확인하고 주유소 관계자에게는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



5월 3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할인 혜택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 인구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2자녀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 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가 할인되고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다자녀의 연평균 할인 건수가 1만 1944건이라고 밝혔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체육·문화 시설 활용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시설 등이 늘봄학교 운영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행안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시설을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용 시설은 체육관·수영장 등 체육시

설 2000여 개와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자연휴양림·캠핑장 등 1만여 개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독서·미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해 늘봄학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두고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을 지정해 시설 등을 사용할 때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5월 2일 서울 구로구 키움센터에서 서울매봉초등학교와 서울오류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소상공인 3만 2000명 1조 원 규모 신규 보증 추가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이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높이고 2년간 한시적으로 0.03%P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현재 신용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

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 규모가 늘어나 2020년 10월 0.04%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연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2월 8일 열린 제10차 민생토론회에서는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월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전국 규모 첫 실시

정부가 7월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해

당 누리집(nypi-mogef.kr/survey.asp)에 접속해 사전조사에 참여하면 결과를 분석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본 조사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별도로 발송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고립·은둔의 시작 ▲고립·은둔 생활 양상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한다.

카카오·네이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앞으로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 톡, 토스 앱 등에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참여자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

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는 연내 각 사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월 1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탑재돼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분증 정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9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 제9회 보안기술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무인주류 구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지역은 광주·경기·경남·경북·부산·서울·인천·세종·전북·충남·충북 등 17개 시·도다. 서비스는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340명과 낮활동 서비스 개별형 500명, 그룹형 1500명 등 총 2340

명에게 제공된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도전행동,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K

장가현 기자

마약·자살·난임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 2조 2097억 원을 투자하고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는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에는 2667억 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제16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바이오특별위원회는 2016년 출범한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로 범부처 바이오 R&D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등 총 세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생명자원 연구에 2025억 원 투입

지난해 생명자원 연구분야에 11개 부처가 총 1830억 원을 투자했다. ‘생명연구자원법’을 개정해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도 정비했다. 바이어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을 연계해 바이오 소재 통합플랫폼(바이오원·BioOne)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4년 생명자원 연구에 2023년보다 10.7% 늘어난 2025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재 분야에 1196억 원, 데이터 분야에 8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환경부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과 연계해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정밀의료 산업혁신을 위해 임상·유전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2023년 시범운영한 바이오원을 정식 운영하고 야생동물 등 클러스터 전문 포털을 구축해 소재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바이오 소재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생명연구자원 분야는 민간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분야는 8개 부처에 37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계획을 이행했다. 감염병기술표준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지

“환경부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과 연계해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

정부가 범부처와 협력해 국가 차원으로 국내 바이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연구자들에게 활용하도록 만든 바이오데이터 공유 허브. K-BDS는 ▲국가 연구개발(R&D)로 생산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지속가능한 통합 수집·제공 ▲다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전산 환경 구축·수집된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통합 분석·활용 환경 제공 ▲빅데이터 분석 기술개발 및 전문 공공·민간기관 육성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2조 1397억(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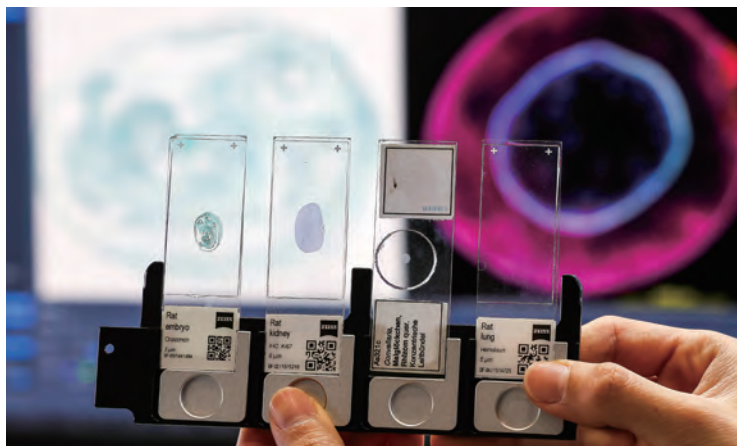
→ 2조 2097억
(2024년)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2025억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2667억



5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슬라이드 스캐너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식정보서비스(NTIS) 내 감염병 R&D 현황판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R&D에 대한 책임기반을 강화했다.

올해는 국가 감염병 R&D에 약 26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R&D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우선순위 신·변종 감염병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R&D'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협의체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 및 관련 신규 사업을 기획한다.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전임상시험지원체계를 운영해 임상 예측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선진 연구기관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해외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세계무역기구(WHO) 협력센터 등과 함께 국제 네

트워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2023년 보건의료기술 R&D에 2조 1379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4000억 원 넘는 기술이전 3건을 포함해 약 3조 3830억 원 규모(9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외 인증 획득, 치매치료제 임상 1상·1a/1b상 승인 등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주요 R&D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국민생명·건강보호(3764억 원) ▲보건안보 확립(3488억 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1조 1213억 원) ▲R&D 혁신 생태계 조성(3631억 원) 등 4대 전력분야별로 혁신·도전형, 글로벌 협력 등 독창성과 수월성을 기준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마약과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 해결과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기술·난임

? 바이오 소재 통합플랫폼(BioOne)

미생물, 천연물, 배양세포 등 바이오 소재 관련 정보 검색과 분양 신청이 가능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을 연계한 플랫폼.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혁신 기구인 ARPA-H 모델을 참고해 한국의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만든 대형 프로젝트. 전염병, 미정복 질환 등 미래 위험이 될 수 있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치료기술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팬데믹, 미정복 질환 등 미래 위험이 될 수 있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R&D체계를 보건의료분야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K]

장가현 기자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 많이 쓸수록 비싸진다 최고 300%까지 할증

4세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약제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보험을 말한다. 기존 1~3세대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는 낮지만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높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항목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적용수준 내리는 구조다.

?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2023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까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해마다 보험료를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다르게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보험금 할인 대상자 62.1%, 할증 1.3% 추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 구간으로 구분된다. 갱신된 보험료는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 기준으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
할인·할증률	-5%(잠정)	-	100%	200%	300%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	보험금 없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대상 건수 비율 (추정)	62.1%	36.6%	1.3%		

자료 금융위원회

로 계산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5% 내외로 할인받는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150만 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가 각각 할증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62.1%에 달하고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36.6%

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할증 대상자에게 거둔 할증액으로 충당한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 시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

정가현 기자

디지털 관광주민증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받아
인구감소 위기 지역도 살리고 다양한
여행 할인혜택도 챙겨보세요!

할인 혜택 챙기고 인구소멸지역 살리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받아볼까?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 산으로 바다로 여행 계획 중인 분들 많죠? 하지만 고물가 시대엔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내 여행을 떠난다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을 활용해보세요.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에요. 관광주민증을 소지하면 여행 시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척 유용해요. 지금까지 발급자 수만 70만 명.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6월 여행가는 달’에는 혜택이 더욱 늘어났어요.

먼저 사업에 참여한 관광시설과 업체가 대폭 확대됐어요. 앞서 관광주민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15개 지역, 300여 곳이었는데요. 6월부터는 34개 지역, 800여 곳이 참여해 더 많은 할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경기 가평군 가평브릿지집라인 20% 할인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10% 할인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 30% 할인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 20% 할인 등 혜택이 무척 다양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명예주민을 위한 지역별 혜택을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교통비 할인도 놓치지 마세요. 코레일에서는 6월 30일까지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열차 35% 할인 ▲역사 매장 이용권 5% 할인 ▲KTX 2만 원 할인권 증정 등이예요.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여행정보→디지털 관광주민증’ 메뉴에서 거주 지역과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역을 선택하면 끝. 이때 거주지에서 관광주민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우리 지역의 새로운 주민이 될 분께 양보해주세요. 관광주민증을 이용할 땐 방문지에서 QR코드를 스캔한 뒤 할인증을 내려 받아 직원에게 보여주면 돼요.

관광주민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는 매달 이어질 예정이에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지역별로 여행지의 가볼 만한 곳도 자세히 소개돼있으니 꼼꼼히 여행준비 해보세요! ☑

조윤 기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화면 갈무리.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지진 위기경보 ‘경계’ 발령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부안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강이다. 기상청이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 디지털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12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오전 8시 35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이 장관 주재의 중대본 초기상황회의를 열어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

도록 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하라”고 전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재민 발생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피해상황 신속 파악·안전점검 실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부안군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6월 13일 경기도 오산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화성 반월중학교 학생들이 지진 대피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날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벽에 금이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뉴시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부처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안부에 “전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를 감지한 경우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에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에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각 부처와 지자체에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진 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특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펴 피하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K**

임언영 기자

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상황별



장소별



자료 행정안전부

시·도지사도 재난선포 가능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극심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넓혔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



5월 31일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 수변 일대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반지하 등 도심하우·침수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

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포함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침수 취약계층 집중 보호

이와 함께 정부는 여름철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여름철 풍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침수 취약계층 4500여 명을 발굴했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다.

정부는 침수 취약계층을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도우미와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올여름 강해지는 태풍 대비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올여름은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예년보다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약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든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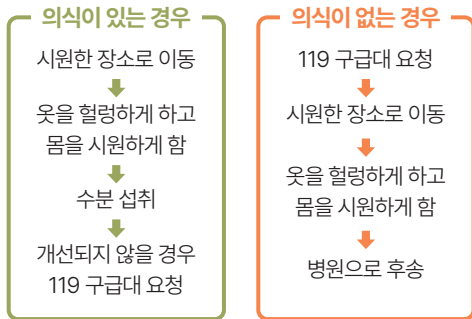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피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을 살피고 대피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 연계해 보다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119안심콜 서비

스는 구급대원이 출동 전에 임산부,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고자의 질병이나 특성을 알고 있어 현장 도착 즉시 맞춤형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도우미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폭염 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양산과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더운 시간대(낮 12시~17시)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두통·근육경련·피로감 땀 응급조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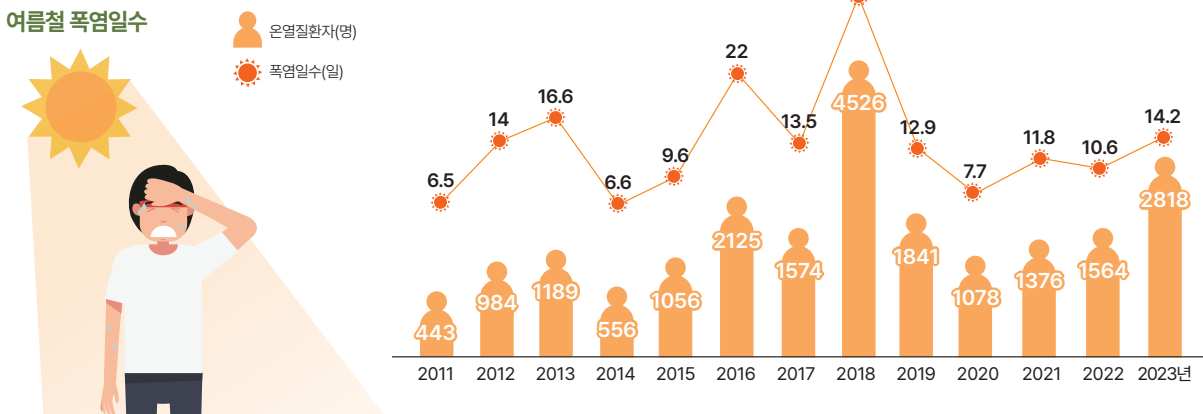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은 6월 10일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오르는 등 이른 더위로 작년보다 온열질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전년 동기간 대비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6.4%를 차지했고 20대가 22.2%, 남성이 69.4%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실외 발생이 88.9%로 많았고 특히 운동장(22.2%), 논밭(20.8%), 길가(15.3%)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려야 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일수



자료 질병관리청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해나갈 것”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6월 10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여름철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도로비탈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5개 지방청장과 국토관리사무소장,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기관으로부터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준비상황

을 보고받은 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가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여름철 취약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실천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K]

서정리 기자

핵심광물

6월 4~5일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합의다. 6월 10일부터 시작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 어젠다로 논의하며 에너지 협력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광물과 에너지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선 에너지와 플랜트 협력을, 카자흐스탄에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우즈베키스탄에선 교통·에너지 설비와 같은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다. 카자흐스탄은 구리를 포함해 아연·철광석·티탄·크롬·은·금 등의 광물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아울러 정부는 6월 11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매장량이 확인된 칠레와 핵심광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투자 협력 강화를 통해 리튬 등 주요 핵심광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광물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로 전기나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광물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네오디뮴·디스프로

슘·터븀·세륨·란탄)를 33개 핵심광물 중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규정하고 있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핵심광물이 주요 의제였다. 우리 정부의 첫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자 정상회의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라는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양측 모두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광물 대화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광물 대화'의 출범은 전기차와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다. 첨단산업 분야 선도국인 한국과 핵심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인 아프리카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전 세계 핵심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대륙이다. 

임언영 기자

리튬·니켈·코발트...
청정에너지 전환 위한
미래 산업의 주요 자원



사진: 게티이미지

“의료계 집단 휴진은 진료 거부에 해당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 할 것”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하고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잇따라 무기한 휴진 계획을 내놓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 36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신고 받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의

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6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

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③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지금

생명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료사고로 받게 될 피해로 ‘필수의료’ 선택을 기피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미용의료,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상은 더 커지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까지 생기는 상황

소아, 분만, 외과계 수술 등
의사 부족으로 제때 진료 받기 어려움
필수분야 의료진은
업무 강도 증가와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버티지 못한 의료진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022년 기준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

72
곳

앞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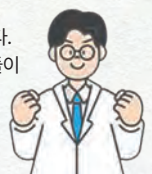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최선을 다한
의사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정비해
생명직결되는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생명이 직결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국가보상금 70% → 100%

필수의료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신규 배출될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진료를 정합니다.



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9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 총리는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와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하겠다”고 재차 대화의 의지를 밝혔다. 6월 4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유

지와 업무개시 명령,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6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진료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했다. 또 “소아과, 산과, 외과 등 필수요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늘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사고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의사는 소신껏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는

4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암·중증 수술을 지방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병원 환자와 인력 집중, 지방 병원 인력 부족과 수술 어려움

지방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환자는 상경진료를
가야 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선 환자가 몰려
1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지방-서울 왕복 수백 km의 거리를
다니다가 병원 근처 고시촌 등 일명 ‘환자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심뇌질환, 외과계 수술 등 중증과 중증증 이하 입원·수술·
응급 등 필수요료가 지역 2차 병원에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수치료 분야 관련
전문 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지역 내에서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화순전남대병원
암수술

부천세종병원
심장

창원한마음병원
간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지역 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관리가 가능

수술 후에는 연결된 2차 병원에서도
관리받아 문제 발생 시
국립대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진료라는 말이 사라진다.”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하고 전문의가 병원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의대생들은 지금보다 한층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고 지역거점병원 수련을 거쳐 존경받는 지역의료계의 리더로 만족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 총리는 국가 전체로도 “5대 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는 우수한 경쟁력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새롭게 선발되는 의대생들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은 의학·의과학 분야와 의료벤처 산업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의과학자가 배출되고 해외에 진출한 의료인들이 K-의료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청사진도 펼쳤다. 한 총리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논의하고 있다.

6월 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미래의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전공의의 업

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한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과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 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을 위해 보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에서는 해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과 인력 수급 및 조정기구 사례를 검토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의 구조,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계 시스템 등 기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안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등 의료인력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검토됐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안전에서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인력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과제 등 큰 틀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며 실제 수급 추계 방안 논의·추계 작업은 의료개혁특위의 제언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거버넌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K] 김효정 기자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찾습니다

학교급식 캐릭터 공모전

2024.5.13.(월)~6.28.(금)



공모주제

학교급식의 건강지향성과 중요성을 상징하는 캐릭터 공모

[핵심 메시지]

-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공급
-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질 높은 학교급식
-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학교급식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로 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급식시간

공모분야

학교급식 캐릭터 디자인 및 네이밍 (스토리)

* 캐릭터 기본형(앞, 옆, 뒤) 및 응용 동작 3개 이상 나타난 이미지와 동 캐릭터의 이름, 특징, 성격, 탄생배경 등을 살린 스토리텔링

공모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국민 등 전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팀장 포함 5명 이내)으로 참여 가능

시상내역

문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첨가상)
상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한국교육환경 보호원장상
인원	1	2	5
상금	300만원	각 100만원	각 20만원

공모일정

작품 모집 (5.13~6.28.)	심사 (7~8월)	시상 (9월)
개안팀 → 메일 제출	1차 서면심사 2차 온라인 투표 3차 최종심사	시상식 개최 및 상징 수여

제출방법

신청서(서식2-1), 동의서(서식2-2), 캐릭터 디자인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교급식팀 이메일로 제출

* E-mail. schoolfood@schoolkeepa.or.kr

문의사항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 학교급식팀
Tel. 043-710-4035, 4018

※ 학교급식 정보마당(www.sfic.go.kr) 등의 사이트 내 '2024 학교급식 공모전' 또는 '학교급식 캐릭터 공모전' 게시글(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하단 QR 링크를 통해 공모전 계획(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교육부

17개시·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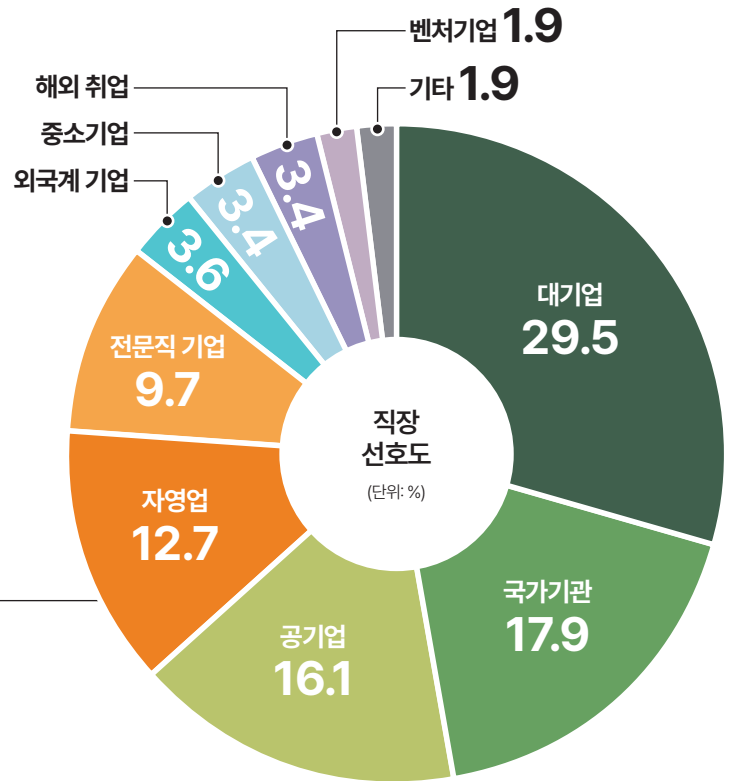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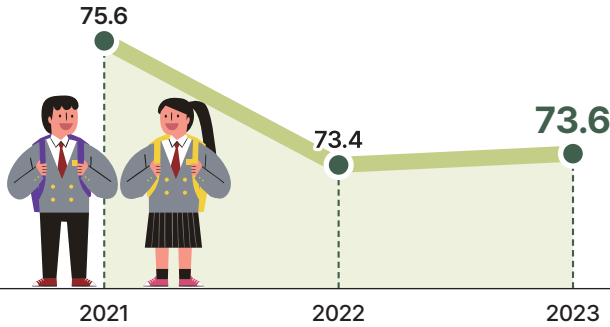
주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청소년 10명 중 7명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

2023년 기준으로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 기업,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증가했다.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약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7.3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80% 이상이 ‘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5월 29일 이 같은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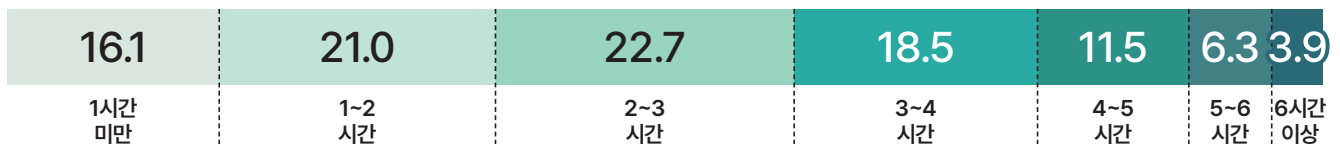
용의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해 청소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자료는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했다.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24세를 기본으로 하되 통계별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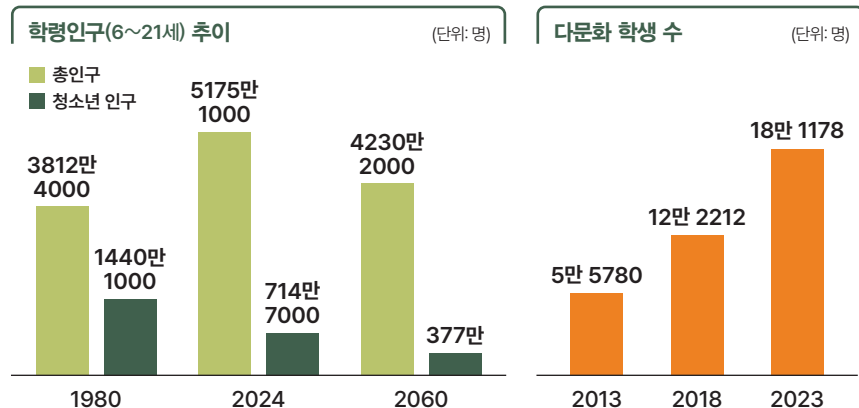
2023년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29.5%), 국가기관(17.9%), 공기업(16.1%), 자영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국가기관, 공기업,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든 반면 대기업, 전문직 기업,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는 늘었다.

청소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43%)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적성(17.1%), 직업의 장래성(11.1%)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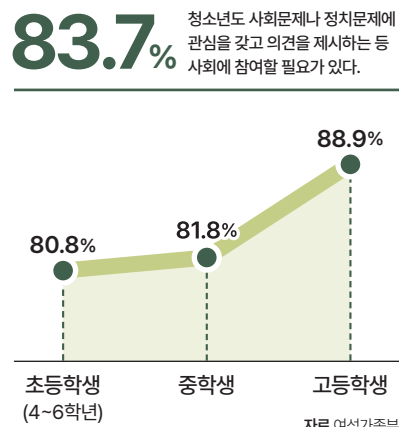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 (단위: %, 평일 하루 기준)



학령인구



사회참여 의식



시했다. 2020년 조사 때와 비교해 적성과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를 선택한 비율은 상승하고 안정성 및 경제적 수입, 자아 성취를 선택한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초(4~6학년)·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비율은 40.2%였다. 10명 중 1명 이상(10.2%)은 5시간 이상 학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약 8명(78.5%)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숫자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6%,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였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도 전년에 비해 0.1시간 증가해 7.3시간을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는 과목은 일반교과가 62.9%, 예체능·취미·교양이 46.4%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높은 사회참여 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

다. 2023년 초(4~6년)·중·고등학생의 83.7%는 ‘청소년도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도 사회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여학생(86.9%)이 남학생(80.5%)보다 강한 사회참여 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10명 중 약 6명(67.6%)은 ‘청소년은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학령인구 13.8%

아울러 지난해 초(4~6년)·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73.6%)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같이 느끼는 학생의 비중은 줄었다. ‘학교 친구와 선생님이 나를 존중한다’고 느끼는 비율을 각각 94%, 94.9%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청소년(13~24세) 10명 중 8명(85%)은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2023년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3%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6%였다. 10대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40.1%의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문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뜻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학령인구 비중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4년 학령인구(6~21세)는 총인구의 13.8%(714만 7000명)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었다. 학령인구 비중은 2060년에는 총인구의 8.9%(377만 명)로 지금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학생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2023년 다문화 학생은 18만 1178명으로 전체 학생(521만 8000명)의 3.5%를 차지했다.

조윤 기자

‘제13회 수산인의 날’ 은탑산업훈장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

“김 수출 1조 원 시대 나라별 맞춤 전략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았다”

2023년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 김 수출액은 전년 보다 22.2% 늘어난 7억 9000만 달러(약 1조 300억 원)로 집계됐다.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1000만 달러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7배 이상 성장했다. 수출국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가량 늘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이 ‘수출 효자’ 역할을 한 덕에 2023년 국내 수산식품 수출액은 2년 연속 30억 달러(약 3조 9000억 원)를 넘겼다.

이러한 실적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뿐 아니라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의 기술 혁신, 신제품 개발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것도 큰 몫을 했다. 지난 4월 전남 완도군에서 열린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배 대표는 1979년부터 김 가공사업과 해외 수출에 주력해 왔으며 조미김과 김스낵을 위한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등 김의 부가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18년간 중단된 일본 김 수출을 1995년 재개했고, 2010년부터는 한국수산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23년에는 ‘일본 수출 한국산 김 입찰·상담회’를 통해 1050억 원의

수출 계약을 끌어내며 2023년 김 수출 최초 1조 원 돌파에 기여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45년간 김 가공과 수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배 대표를 만나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 김 산업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김 수출 1조 원 시대를 맞은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세계에서 김을 대규모로 생산해 상품화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뿐이다. 처음 김을 해외에 수출할 때만 해도 우리 김은 일본,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김 원료에 이물질이 많은 데다 가공한 김엔 구멍도 많고 형태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 위생 수준을 끌어올린 결과 현재 전 세계 김 시장 1위, 그것도 70%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니 뿌듯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그 과정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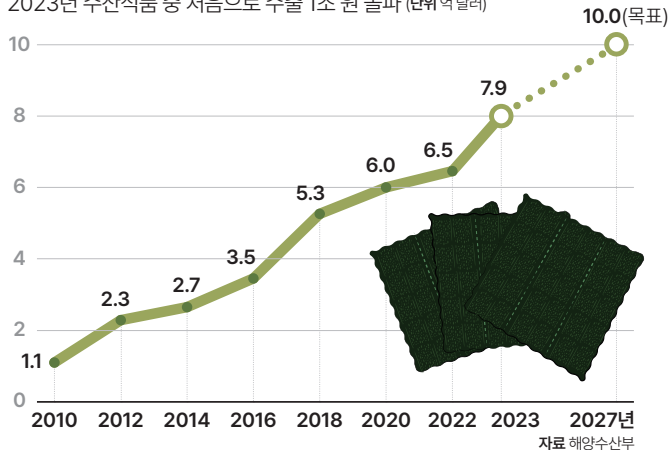
1978년 세화수산이란 이름으로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김을 포함해 각종 수산물을 가공해 완제품으로 내놨다. 수출도 시작했다. 1986년에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후 1800만 달러까지 갔지만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어장이 줄면서 한계를 느꼈다. 수산자원은 한정돼 있다보

김 수출 1조원 돌파에 기여한
공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가 김
포장 작업이 한창인 공장에서
김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영상미디어



김 수출액 추이

2023년 수산식품 중 처음으로 수출 1조 원 돌파 (단위: 억달러)



“김은 웰빙·다이어트 식품이면서 비건 식품이기도 하고 할랄 음식이기도 하다. 건강과 미용에 좋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 늘고 있다.”

니 고갈 문제에 직면했다. 반면 김은 국내 어디에서든 양식이 가능해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 국내 가공 산업이 발달한 것도 김 가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김 가공에 집중했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김을 비롯해 우리 수산물 수출을 위해 무역협회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보상받은 기분이다.

한국 김이 해외에서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밥을 김에 싸 먹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해외에선 ‘밥에 싸 먹는 김’보다 스낵처럼 먹는 ‘간식용 김’이 인기다. 이 때문에 김부각, 김스낵, 김칩 등 다양한 형태의 신상품을 개발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외국인들 입맛에 맞게 겨자맛, 김치맛, 바비큐맛, 데리야키맛 등 다양한 맛을 김 제품에 가미했다. 국가별로 그 나라 입맛과 시장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한 것도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김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김은 웰빙·다이어트 식품이면서 비건 식품이기도 하고 할랄 음식이기도 하다. 건강과 미용에 좋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 늘고 있다.

김 수출이 어촌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김은 전량이 국내 연안에서 생산되고 가공·유통 등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어촌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

는 품목으로 꼽힌다. 김 수출액이 늘수록 김 제조, 설비 등의 투자와 연구·개발, 품질 개선 등도 더불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세화씨푸드의 주력 제품은 뭔가?

1980년 조미용 김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당시만 해도 햇볕에 김을 말려 먹는 재래식 김이 전부였다. 기름과 소금을 바른 조미김 생산라인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이내 조미김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에서 생산하지 않는 아이템을 연구·개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선호하는 스낵용 김이나 기능성 김을 개발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다행히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재 일본,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 12종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연간 수출량은 50톤에 이른다.

특히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한 포인트가 있을까?

김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싫어하는 소비자를 위해 소금 대신 굴소스를 사용해 거부감을 없앴다. 김부각을 만들 때는 우리 쌀가루를 활용해 바삭함을 극대화했다. 스낵용 김은 와사비맛처럼 각 나라와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나라별로 필요한 유기농 인증, 할랄 인증(이슬람 율법에 맞게 만들어진 음식에 부여하는 인증), 코셔 인증(유대교 율법에 맞게 만들었다는 인증) 등을 획득해 수출에 나서고 있다.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목표… 정부도 김 산업 육성 나서

정부가 2027년까지 김 수출을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놔다. 정부는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의 주산지인 전남에 1200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건립해 가공, 연구·개발(R&D) 및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2025년 전남 목포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김 거래소 운영과 스마트 가공설비 등을 갖춰 김 원물 거래와 가공, 수출 등을 '원스톱'으로 이뤄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마케팅 등 수출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국제 박람회나 외국 바이어 대상 간담회 지원 등을 통해 판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김 산업 진흥구역을 5곳까지 확대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

리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 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역을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한 곳에 50억 원(국비·지방비 포함)씩 지원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신안군 3곳이 2023년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월 21일 전남 진도군·장흥군이 추가됐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이나 비용 투자도 필요할 것 같다.

매년 이익금의 30%를 연구·개발비와 시장 개척,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 연구 인력도 배치하고 있다. 부산 본사와 별도로 얼마 전 전남 장흥군에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장흥은 무산김이 유명하다. 김에서 잡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산이나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김이다. 유기농 김에 대한 해외 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 이를 잘 개발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등에도 우리 김을 수출해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고 싶다.

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1986년 설립 이후 38년째 가공수산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립 멤버로 시작해 2010년부터는 회장직을 맡아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무역협회는 우수 수산식품 홍보·마케팅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저율관세할당(TRQ) 물량공매 등 수산물 수입권 관리업무, 우리나라 김에 대한 일본의 수입할당(IQ) 물량 수출,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주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1977년부터 18년간 중단됐던 일본 김 수출을 1995년 재개했다. 일본 수출 중단 이후 김 업계 전반에 위기가 지속됐고 무역협회는 정부에 일본 수출 재개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일본 김 관련 단체에 한국산 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했다.


일본 수출 재개 이후 김 수출량이 얼마나 늘었나?

일본의 김 수확량은 매년 급감하고 있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양식업 종사자 감소,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이 요인이다.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한국 김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한국 김의 수준도 높아지면서 매년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일본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수출 효자가 된 김 산업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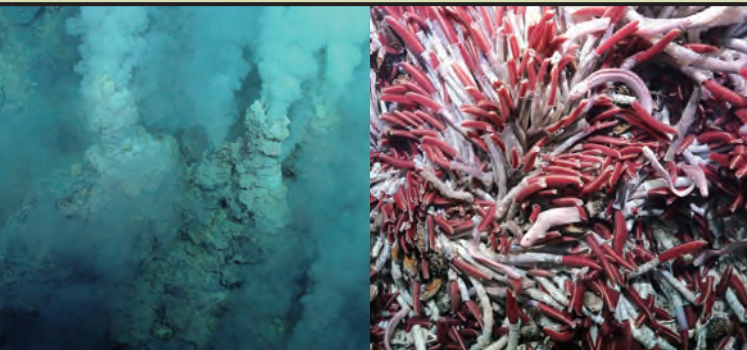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 김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 맞춰 좋은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양만 늘려서 저가품이 많아진다면 이미지 추락을 면치 못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김 양식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이고 국제화될 수 있도록 가공기계, 이물질 선별기, 품질 관리 등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행히 2021년 12월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김 산업 진흥구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부산 낙동강 하구에 있는 김 산지다. 어릴 때부터 김과 함께 자랐고 수산계 학교를 나와 평생 김에 바쳤다. 우리 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우리 수산업이 안정화되고 세계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그리고 대를 잇는 기업, 100년 기업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강정미 기자

신소재·신약 품은 바닷속 작은 우주 열수공을 찾아라!



(왼쪽) 화이트 스모커. 사진 Wikipedia (오른쪽) 관벌레. 사진 SOI 공식 누리집

? 희유금속

철이나 구리 등의 일반 금속과 달리 매장량이 적고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며 추출이 어려운 금속을 말한다. 리튬, 규소, 니켈, 인듐, 몰리브덴, 세슘 등이 속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다.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는 니켈·리튬처럼 반도체, IT,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산출량은 적어 공급 불안정성이 크다.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멍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햇빛조차 닿지 않는 차갑고 어두운 심해, 그중에서도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닷속 작은 우주’로 불리는 ‘열수분출공(이하 열수공)’이다. 과학자들은 열수공 주변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의 원시바다 환경과 비슷하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열수공의 생태계를 연구해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밀을 풀려고 한다.

또 열수공에는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이 풍부하다. 다양한 국제회의의 현장에서는 바닷속 고부가가치의 ‘광물자원’과 ‘생물자원’을 둘러싸고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논쟁과 행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 공통된 자원보고의 첫 번째로 꼽는 곳 또한 심해 열수공 지역이다.

2km 넘는 심해에서 300℃ 열수 치솟는 ‘활화산’

열수공은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구멍을 말한다. 해저 화산활동으로 인해 300℃가 넘는 뜨거운 물이 검은 색 연기처럼 팔팔 솟구쳐 오른다. 바닷속 온천인 셈이다. 바다는 깊숙이 들어갈수록 햇빛이 닿지 않아 수온이 점점 낮아진다. 수심 1000m로 내려가면 수온이 1~2℃일 정도로 차갑다. 그런 심해에서 열수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저 지각의 틈새로 스며든 바닷물은 마그마와 닿으면서 가열된다. 이때 주변의 구리, 철, 아연, 금, 은, 유황, 망간 같은 금속 성분이 녹아든다. 이러한 성분을 품은 뜨거운 바닷물은 다시 지각의 틈새로 솟아오른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주변의 찬물과 만나고, 물속에 녹아 있던 금속 이온이 침전하면서 열수공이 만들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침전물이 쌓여 열수공의 높이가 굴뚝처럼 수십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열수공이 내뿜는 뜨거운 물은 바닷물 속에 녹은 금속 종류에 따라 검은 연기나 흰 연기처럼 보인다. 이를 각각 ‘블랙 스모커(Black Smoker)’, ‘화이트 스모커(White Smoker)’라고 부른다. 강한 산성의 열수에 다량으로 녹아 있던 아연, 납, 철 등의 금속이 차갑고 염기성인 바닷물과 섞이면 검은색 황화성 광물로 분리돼 나온다. 반대로 열수에 녹아 있는 성분에 바륨, 칼슘, 규소가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분출물 색이 흰색을 띤다.

보통 지구 대기압에서의 물은 100℃가 되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한다. 하지만 수압이 높은 심해에서는 끓는점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300℃라는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아 기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뿜어져 나온다. 수압은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높아지므로 2000m 깊이에서는 200기압까지 올라간다. 이는 지상에서 느끼는 기압의 200배나 되는 무게로 손바닥에 무게 3톤인 코끼리 약 7마리를 올려놓은 것과 맞먹는다.

열수공은 1977년 해저 2700m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현재까지 발견된 열수공은 약 300개. 대부분 태평양에 모여 있고 대서양에 10여 개, 인도양에 4개가 있다. 인도양의 4개 중 1개는 2018년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견했다. 우리나라가 심해에서 열수공을 발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미국·일본, 독일·일본이 공동으로 찾아낸 것이 각각 1개, 중국이 1개였다. 한국이 한국형 해양연구선 ‘이서부호’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네 번째 발견에 성공한 것이다.

열수공은 저마다 환경이 다르다. 때문에 발견되는 생명체 역시 다르다. 사람 팔뚝만 한 두께로 2m까지 자라며 소화기관이 없는 관벌레가 가장 흔하다. 눈 없는 새우, 어른 신발만큼 큰 조개, 황화철과 여러 금속으로 이뤄진 비늘을 가진 비늘발고등 등을 비롯해 이름 모를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독자적으로 진화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열수공 주변은 심해의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심해 생물체에서 새 물질 추출해 의약품 개발

육지에서는 식물이 햇빛 에너지로 광합성을 해 영양분을 만들고 그런 식물을 다른 동물들이 먹어 생태계가 유지된다. 그런데 빛이 닿지 않아 광합성을 할 식물이 없는 열수공에서는 생물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갈까? 이곳 생물은 광합성 대신 황화수소라는 화학에너지를 연료 삼아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비밀은 황화박테리아와의 끈끈한 공생에 있다. 이 박테리아는 바다의 플랑크톤만큼 많고 열수공에서 펄펄 쏟아내는 물질에는 황화수소가 잔뜩 들어 있다. 관벌레는 자신의 몸속에 자리 잡고 사는 황화박테리아에게 황화수소를 공급한다. 대신 황화박테리아는 황화수소가 산화될 때 나

“열수공에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신종 생명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들 생명체의 단백질, 유전자 등을 조사하면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열수공에서 발견한 신종 생물에서 10여 종의 항암 물질과 면역 관련 물질을 찾아내 신약 개발에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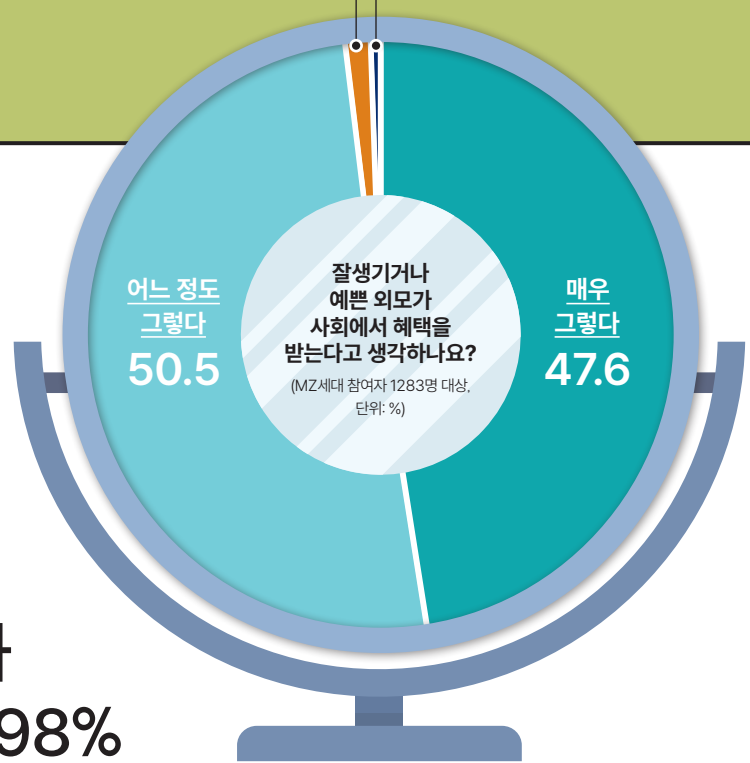
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탄수화물을 만든다. 이를 관벌레에게 제공한다. 탄수화물은 생명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영양분이다. 게나 조개 같은 생물은 아예 황화박테리아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

황화박테리아의 화학합성으로 생태계가 유지되는 열수공에는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자원이 다양하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을 비롯해 구리, 아연, 납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용광물이 많이 쌓여 있다. 희유금속인 인듐과 셀레늄의 자원 잠재력 또한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열수공의 광물을 캐내기 위해 심해를 조사하고 있다. 기본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신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또 열수공에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신종 생명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들 생명체의 단백질, 유전자 등을 조사하면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열수공에서 발견한 신종 생물에서 10여 종의 항암 물질과 면역 관련 물질을 찾아내 신약 개발에 사용했다. 화이자, GSK 등 다국적 제약기업에 기술이 이전되기도 했다. 일본 역시 열수공 신종 생물에서 발견한 효소로 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확보한 인도양 열수공의 신종 생물에서 새로운 물질을 추출해 의약품 개발에 사용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열수공의 무궁무진한 광물·생물자원을 통해 신약 개발은 물론 지구 생명체 탄생의 비밀이 벗겨지길 기대한다. K

별로 그렇지 않다 1.6 전혀 그렇지 않다 0.3



외모도 스펙!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사회적 혜택 받는다” 98%

우리는 정말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 ‘외모도 스펙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형수술에 관심 갖는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MZ세대는 외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외모에 대한 압박감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외모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알 수 있었어요.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가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무려 98.1%에 달했거든요. 외모가 사회적·직업적인 성공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당연해보이기도 해요.

흥미로운 점은 외모에 대한 MZ세대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다는 결과였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만족한다’가 5.5%,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55.2%로 전체 참여자의 60.7%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감과도 직결되죠. 본인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다음으로는 ‘보통이다(27.5%)’라는 응답이었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능한 구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외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5만~10만 원’이 37.8%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미만’이 31.4%, ‘10만~20만 원’이 20.7% 순이었어요. MZ세대의 평균 연봉이 3000만~35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월 ‘5만~10만 원’은 월급의 2~3% 수준이니 적절하다고 보여요.

직장에서 외모를 꾸미지 않을 권리

한때 직장 내 외모와 꾸밈에 대한 요구가 논란의 대상인 적이 있었어요. 한 영화관에서는 여성 직원들에게 ‘생기있는 피부 화장’, ‘또렷한 눈썹 그리기’, ‘빨간색 립스틱 바르기’를 요구했고 한 기업에서는 외모 꾸미기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직원과 회사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MZ세대는 직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꾸밈 및 용모 관련 요구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과 외모 유지(57.1%)’였어요. 청결 유지와 단정한 복장은 회사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27.9%가 ‘고객 서비스 직종이라면 어느 정도 꾸밈 요구 가능’이라고 답변했어요. ‘간단한 피부화장과 립스틱 바르기’에 대해서는 2.3%만이 동의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된

어피티는 MZ 맞춤형 경제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담아
매일 아침 50만 구독자에게 보내는 MZ세대 대표 경제 미디어입니다.

직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꾸밈·용모 관련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MZ세대 참여자 1283명 대상, 단위: %)

57.1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과 외모 유지

27.9 고객 서비스 직종이라면
어느 정도 꾸밈 요구 가능

7.0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4.2 구두와 정장 등 비즈니스룩 갖춰 입기

2.3 간단한 피부화장과 립스틱 바르기

1.5 기타

다'는 의견도 7.0%를 차지했어요.

M세대 생각하는 치타 님은 “과거에는 출근 복장으로 정장이 필
수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편하고 자연스러운 복장도 많이 허
용하는 분위기라서 활동하기 편한 것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어야겠죠.

한편 외모를 가꾸는 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인지 묻
는 질문에는 ‘피부 관리’를 선택한 참여자가 36.2%로 가장 높았
어요. 그다음으로는 ‘패션’ 22.7%, ‘체형 관리’ 21.5%, ‘메이크업’
10.0%, ‘헤어스타일’ 8.0% 순이었어요.

10명 중 4명 ‘성형했어요’

성형수술이나 시술이 일반화된 요즘, 이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어
요. 63.0%의 참여자가 ‘개인의 선택이기에 존중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자기만족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입장도 27.4%로 적지 않았어요. 반면 ‘외모보다는 내면
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9.6%에 그쳤어요.

실제로 성형수술이나 시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0
명 중 4명(39.2%)에 달했어요. 성형을 고려한 주된 이유로는 ‘특

어피티가 1283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5월 31일~6월 6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Q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가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나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꾸밈·용모 관련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과 외모 유지
② 간단한 피부화장과 립스틱 바르기
③ 고객 서비스 직종이라면 어느 정도 꾸밈 요구 가능
④ 구두와 정장 등 비즈니스룩 갖춰 입기
⑤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⑥ 기타

일상생활에서 미용, 관리 등 외모를 가꾸는 데
한 달에 평균 얼마나 지출하나요?

- ① 5만 원 미만 ② 5만~10만 원 ③ 10만~20만 원
④ 20만~30만 원 ⑤ 30만 원 이상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① 피부 관리 ② 헤어스타일 ③ 메이크업 ④ 패션
⑤ 체형 관리 ⑥ 성형수술 및 성형시술 ⑦ 기타

성형수술 또는 성형시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 ① 긍정(자기만족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② 중립(개인의 선택이기에 존중한다)
③ 부정(외모보다는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다)

성형수술 또는 성형시술을 해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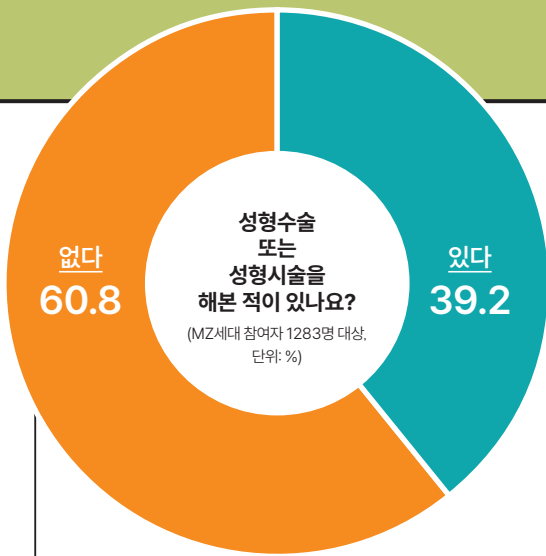
- ① 있다 ② 없다

성형수술 또는 성형시술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② 대중매체나 누리소통망(SNS)에서 본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서
③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싶어서
④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인상을 주기 위해
⑤ 상처나 사고로 인한 외모 복원을 위해
⑥ 치료의 목적으로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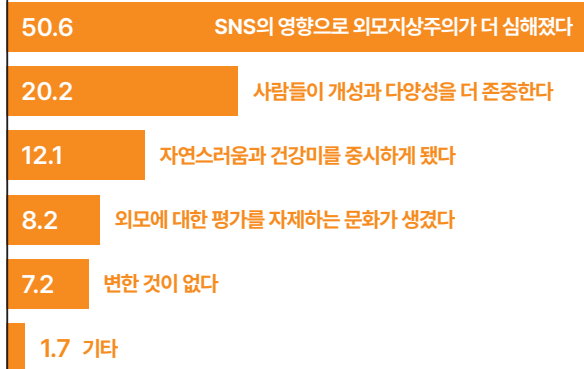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사람들이 개성과 다양성을 더 존중한다
② 자연스러움과 건강미를 중시하게 됐다
③ 외모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문화가 생겼다
④ SNS의 영향으로 외모지상주의가 더 심해졌다
⑤ 변한 것이 없다 ⑥ 기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MZ세대 참여자 1283명 대상, 단위: %)



정 신체 부위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았어요.

M세대 타파 님은 "10대 때 생긴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20대 초반부터 돈을 버는 족족 성형수술을 했고 얼마 전까지 성형에 대한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성을 더 존중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본래 얼굴대로 살았어도 행복하게 사는 데 큰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변했지만 정작 제 외모 콤플렉스의 원인이 된 어른들은 아직도 제게 저지른 외모 차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워요"라고 말했어요.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성형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11.9%, '대중매체나 누리소통망(SNS)에서 본 이상적인 외모를 원해서'라는 응답은 5.2%에 그쳤어요. 성형의 동기로 개인의 콤플렉스와 자

신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SNS나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외모나 타파 님의 사례처럼 주변인의 평가 등이 개인의 콤플렉스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성형을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여기고 성형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다양하겠지만 이 과정에 사회적인 압박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구분하는 일은 중요할 것 같아요

‘외모지상주의, 10년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죠. 하지만 시대에 따라 인식과 태도는 변하기 마련이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어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SNS의 영향으로 외모지상주의가 더 심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참여자의 절반 이상(50.6%)이 이런 의견을 표했어요.

Z세대 만두군주 님은 "SNS의 발달로 외모가 중요한 콘텐츠가 되고 자본주의와 외모지상주의가 결합되면서 오히려 외모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또 일반 사람들도 SNS를 통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접하고 비교하다보니 이전보다 더 완벽한 외모를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며 SNS가 외모에 더 신경쓰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어요.

반면 M세대 리리 님은 "최근 20~30대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평가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외모 평가를 당하는 것은 나의 외모를 타인이 소비하는 행동이니까요. 대신 스스로가 생각과 행동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죠. 저 역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외모 관리보다 공부와 커리어 개발에 투자하며 성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원해요"라는 의견을 전했어요.

이처럼 MZ세대는 외모보다 가치관이나 능력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해요. 때문에 외모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상대방을 대할 때 외모에 대한 언급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알아가는 새로운 재미가 있을 거예요. **K**



“디지털 문해 스마트폰 기초” 수업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강사의 안내를 따라 스마트폰을 작동시키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카카오톡 메시지 어떻게 보내지?” “와이파이 버튼은 어디...?”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 가보니

“미안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른다고 했더니 젊은 친구가 덜컥 화를 내네. 당장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어요. 어찌나 서럽던지 오는 길에 눈물이 나서 혼났네요.”

최근 주민센터에 불일이 있어 들렀다가 한 어르신이 주민센터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민망해 하면서 당황한 어르신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웠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의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문해교육은 물론 문해교육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한다. 디지털 사회로부터 소외된 성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학습자들의 이야기는 정부가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하는 배경과 맞닿아 있었다. 최근 서울 마포구평생학

수강생들은 수업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고 서로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등 디지털
교육에 적극적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습센터에서 진행된 ‘디지털 문해 스마트폰 기초’
교육 현장에 다녀왔다.

“아날로그 시대엔 내가 전문가였는데”

수업을 앞둔 평일 오전 9시 40분쯤 노년의 학생
이 하나둘 교실로 모였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잡은 뒤 스마트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
려놓았다. 강사 유미란(60) 씨가 들어와 대형 스
크린을 켜다. 강사의 스마트폰 화면과 스크린이
연동돼 학생들은 스크린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수업에선 와이파이(Wi-Fi) 켜는
방법을 배웠죠?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잡히는 곳
이 있는가 하면 이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수동으로 해야 하는 곳이
기 때문에 먼저 와이파이를 켜 뒤에 수업을 시작
해볼게요.”

이날 수강생은 총 15명. 머리가 희끗한 남성
이 번쩍 손을 들었다.

“와이파이 버튼이 안 보여요. 어디 있지?”

스마트폰을 내민 학생에게 유 씨가 다가가 작
동 방법을 설명해줬다. 유 씨에 따르면 스마트
폰 키패드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수강생
이 많다고 한다. 키패드 크기가 작다보니 잘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키패드를 누르는

속도와 화면 전환 속도가 달라 헛갈려 하기도
한다. 유 씨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뭐가 어
려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도전”이라며 “단순 작업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 또한 수강생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예
를 들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기능은 현관 전등
에 빗대서 설명한다. “현관에서 운동화 신을 때
전등이 금방 꺼져서 손을 흔든 적 있죠? ‘화면
자동 꺼짐 시간’ 기능은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유 씨의 설명에 수강생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생성해 대화 상대
를 초대하는 방법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한테
모아둔 폴더를 만드는 방법 ▲일정 시간 동안
무음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어
지자 질문도 많아졌다.

수강생들의 강의 신청 이유도 다양했다. 김 모
(73) 씨는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받을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불편할 때가 많더라.
자식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며 직
접 수강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날

“아날로그 시대의 나는 그 누구보다 유능한 전문가였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뭐 얼마나 다를까 싶었는데 꼴등이더라. 스마트폰 교육도 이론을 공부하는 식이면 좀 쉽겠는데 감각으로 따라가야 해 매번 어렵다.”

로그 시대의 나는 그 누구보다 유능한 전문가였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뭐 얼마나 다를까 싶었는데 꼴등이더라. 스마트폰 교육도 이론을 공부하는 식이면 좀 쉽겠는데 감각으로 따라가야 해 매번 어렵다”며 웃었다.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봤어...”

박 모(66) 씨는 수업 내용을 내내 수첩에 써내려간 수강생 중 하나다. 그는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하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필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수업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듣기’다. 그는 “스마트폰은 뭐 하나 잘못 누르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누가 그래서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봤다”며 “남들보다 느린 해도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손자를 등원시키느라 뒤늦게 수업에 참석한 이 모(70) 씨 역시 메신저 활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보일러 수리를 신청했더니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회가 생겼을 때 뭐라도 배워둬야 써먹을 수 있겠더라”고 말했다.

수업은 휴식 시간 10분을 제외하고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모든 수강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화면을 잘못 눌러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는가 하면 전화가 잘못 걸리기도 했다. 진도를 따라잡지 못해 계속 이전 화면을 붙들고 씨름하는 수강생도 있었다. 수업 진행이 느렸지만 누구도 불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강생끼리 서로 묻고 가르쳐주기도 했다.

유 씨는 수강생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배움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열정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생긴다”며 “같은 질문을 몇 번 받아도 좋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K]**

이근하 기자

2024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비대면·디지털 활동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정부는 올해 초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2023년까지 누적 약 72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부터는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약 400개,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약 185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에는 하나은행, 맥도날드와 협업해 디지털 금융,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약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를 시작했다. 문해교육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계자가 제11수장고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물관 비밀 공간이 열렸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언론 공개

수장고는 박물관의 비밀 공간 중 하나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2016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차례 일부 수장고를 공개한 이후 철저히 봉인돼 있던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가 6월 5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공개회로 박물관 개관 이래 최초로 진행된 자리다.

정조 책봉할 때 만든 유물 최초 공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지하에 16개 수장고와 본동에 3개 수장고 등 모두 19개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1962년 중앙청

(옛 조선총독부 청사)의 안보회의용 지하병커를 개조한 곳으로, 이후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쓰이다가 국립고궁박물관 개관과 함께 수장고로 사용되고 있다.

수장고는 본관 지하로 내려가 300m가량의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8단계의 보안절차를 거쳐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수장고는 어보류를 보관한 제10수장고, 현판류를 보관한 제11수장고, 열린 수장고 제19수장고다.

이번 공개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유물도 많았다. 1759년 영조가 당시 8세였던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며 만든 죽책·옥인·교명 및 관련 부



(왼쪽) 국립고궁박물관 제5수장고에 보관 중인 조선시대 왕실의 도장인 어보.



(오른쪽) 수장고는 본관 지하로 내려가 300m 가량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8단계의 보안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 뉴스시스

속 유물 등 제10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외에도 제10수장고에는 조선 왕실 어보·어책·교명(보물) 628점 등이 수장돼 있는데, 이들 유물은 오동나무로 만든 4단짜리 수납장에 개별 보관돼 있다.

제11수장고에 보관 중인 인조의 잠저(임금으로 추대된 왕족이 왕이 되기 전 살던 집) 어의궁(於義宮) 현판과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 현판 등도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경모궁 현판은 하단부 테두리 나무가 소실돼 안정성을 위해 거꾸로 보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경궁 내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 현판도 실물로 공개됐는데 현판 세 개는 모두 한 판에 걸쳐 있다. 이곳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포함한 조선왕조 궁중 현판 766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수장고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창경궁 자격루 누기,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등 국보와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조 어보와 영조 어진, 양부일구, 국새 황제지보,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등이 있다.

왕실 유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국가유산청 출범과 함께 유물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

라면서 수장고를 공개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왕실 유물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왕실 유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고궁박물관 분관 설립 등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개관 이후 소장품 수량 증가로 수장고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여주시의 임시수장고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정적인 유물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국립고궁박물관은 초대형이 많은 왕실 유산 특성에 맞는 수장·보존처리 공간 마련을 위해 향후 전시형 수장고 형식의 분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유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육, 체험, 지역민 대상 문화행사 등 복합문화공간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는 총 8만 8530점(궁·능·종묘 등 이관 유물 등)이 유형별로 분산 수장 중이다. 이 중에는 지정·등록유산 총 45건(국보 4건, 보물 27건, 국가민속문화유산 1건, 국가등록문화유산 13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 1건, 시도문화유산 3건이 있다. [K]

임연영 기자

국립고궁박물관 ?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으로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2005년 8월 15일 개관했다. 조선 왕실·대한제국 황실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전시·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조선 왕실·대한제국 황실 유물 8만 853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관람객 수는 88만 명(내국인 약 73만 명, 외국인 약 15만 명)에 달했다.



엄마 임수정 씨는 딸 고담희 양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딸의 허리를 붙잡고 있다.
사진 개그맨 이정규 씨의 누리소통망(SNS)

노래하는 뇌성마비 딸 위해 무릎 꿇은 엄마 임수정 씨

딸의 노래가 세상에 닿을 때까지 다리가 돼주고 디딤돌이 돼주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은 길 가려 하네.”

2019년 10월 인천 남동구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 노래자랑 현장. 아홉 살 고담희 양이 워커(장애인 보조장비)를 짚고 무대에 올랐다. 담희 양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엄마 임수정(52)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딸의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미숙하였던 담희 양은 태어날 때부터 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보조장비 없이는 설 수 없고 장비에 지탱해 선다 해도 금방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엄마는 무대에 선 딸이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다. 딸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면 골반을 붙잡은 손에 힘을 더했다. 딸은 엄마의 신호를 알아채고 다시 몸을 세워 소리를 냈다. 엄마는 딸이 부르는 ‘꿈꾸지 않으면’을 조용히 따라 불렀다.

2024년 또 다른 대회 무대에 선 담희 양은 여전히 엄마와 함께였다. 엄마는 딸이 넘어질까 허리를 부둥켜안아 받쳤고 딸은 엄마의 힘을 받아 목청껏 노래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조회수 수백 만 건을 기록했다. 5월 말 자택에서 만난 모녀는 “우리 가족에게 대박 사건이 터졌다”며 웃었다.

엄마가 담희 양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무대에 선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누리소통망(SNS)을 전혀 하지 않아서 영상이 올라간 지도

몰랐어요. 대회 MC를 맡았던 개그맨 이정규 씨가 영상을 좋은 곳에 쓰고 싶다며 동의를 구하길래 강의용인가보다 했어요.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딸을 보면 어떨까요?

담희가 무대를 통해 용기를 얻고 세상에 한 발짝 나아갔으면 해요. 처음 무대에 서게 된 이유도 그래서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이상행동을 보일 만큼 힘들어하더라고요. 담희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인천의 동심노래자랑(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 문화축제)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 대회를 계기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도 받고 또 다른 대회에도 나가게 됐어요.

담희 양에게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이유와 함께 무대에 서보는 것이 꿈이다”라고 답했다. 담희 양은 요즘 아이유의 노래 ‘자장가’를 자주 듣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다신 볼 수 없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 자장가를 불러주며 인사하는 노래예요. 네가 나를 잊어도 괜찮으니 더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 밤 동안 편안히 잠들면 좋겠다고 해요. 상대를 얼마나 사랑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들을 때마다 슬프고 감동받아요.”

담희 양에게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묻자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담희 양은 엄마를 ‘이불’에 비유했다. 매일 함께 하다보니 소중한



고담희 양의 꿈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엄마는 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을 잃고 살지만 고단할 때면 꼭 찾게 되는 귀한 존재라고 했다. 딸의 말을 듣던 임 씨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임 씨는 2년 1남을 뒀다. 큰딸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고 담희 양이 막내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 딸을 복지관과 학교에 배려해주고 데리고 온다. 아무리 바빠도 춤을 좋아하는 큰딸과 노래를 좋아하는 막내딸을 위한 일정은 절대 잊지 않는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입원 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했다. 두 딸이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모녀가 마주해

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한가요?

큰딸을 헬스장에 보내려고 갔더니 장애인이라서 등록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주변에서 저를 엄청 불쌍하게 보는데 그것도 불편해요. 누구나 다름을 갖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도 매일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면 더 힘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네 뒤에 있을 테니까 두려워 마.
엄마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거야.”

굳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지 않으려고 해요.
담희 양은 태어난 직후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요.

아이에게 뇌출혈이 일어났고 뇌성마비 진단이 내려질 것 같다는 소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의사가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충격이었죠. 담희를 집에 데려오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예요. 애한테 분유를 줘도 손을 흔들어봐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두 딸을 데리고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소파에서 아이를 안고 ‘마지막 분유’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담희가 목을 가누면서 눈을 정확히 맞췄어요. 2kg도 안되는 그 작은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나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 우리 애들을 잘 키워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세상에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옆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담희 양에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 엄마와 눈을 맞춘 저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 입장에서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딱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임 씨는 “2~3년 전만 해도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눈물부터 흘렸다”고 말했다. “둘째 아들은 안 아프니 괜찮겠다”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들 또한 아픈 두 딸 사이에서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임 씨는 “아이들은 제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보면 밝은 날도 오겠거니 생각하고 살아요”라고 말했다.

담희 양이 거들었다. “저는 엄마의 눈을 보면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느껴져요.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가끔은 엄마의 고단함을 알면서도 더 장난을 쳐요. 언젠가 엄마가 ‘담희야 너무 일찍 자라지 않으면 좋겠어. 빨리 성숙하지 말아줘’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게

오히려 엄마를 덜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담희 양은 처음 만난 기자에게 환히 웃으며 먼저 질문을 던지는 외향적인 소녀다. 좋아하는 연예인과 과목에 대해 얘기할 땐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밝은 얼굴로 얘기를 하다가도 엄마의 표정을 살피고 행여 슬퍼 보이면 “괜찮아”라며 등을 토닥였다. “세상에 조금 더 천천히 나오지 그랬어”라는 엄마의 얘기에 담희 양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왔지”라고 말했다. 담희 양에게 물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떨리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관객이 많을수록 재밌어요. 엄마 유전자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가 흥이 넘쳐서 같이 노래방에 있으면 제 기가 빨릴 정도거든요(웃음).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최근 들어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너무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엄마는 제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라서 더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가요?

제 이야기를 담백한 음악으로 풀어내고 싶어요. 꼭 무대에 오르는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죽을 때까지 음악을 통해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임 씨는 “담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크면서 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담희의 성장에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임 씨의 소망은 ‘아이들이 스스로 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꼭 찬 마음으로 구김살 없이 살아주는 것이다. 담희 양은 울겨울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팡이라도 짚고 혼자 설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임 씨는 딸을 향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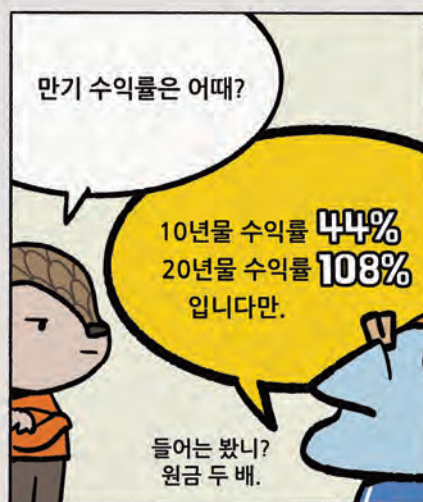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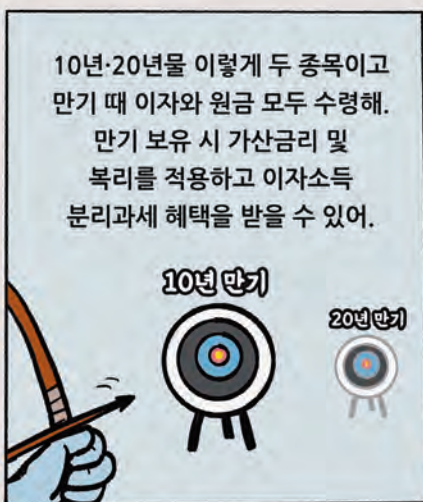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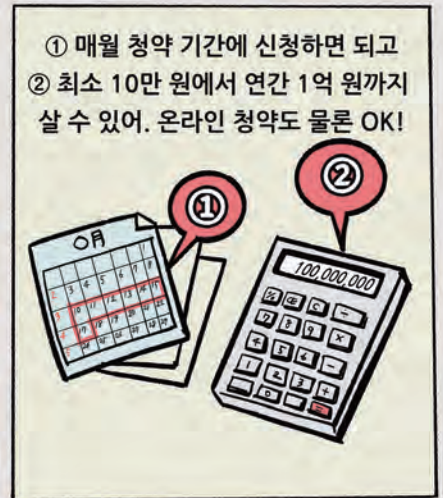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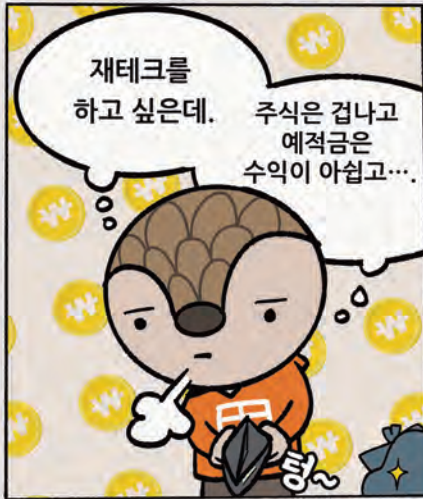
“엄마는 항상 네 뒤에 있을 테니까 두려워 마. 엄마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거야.” **K**

이근하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20년 묻으면 원금 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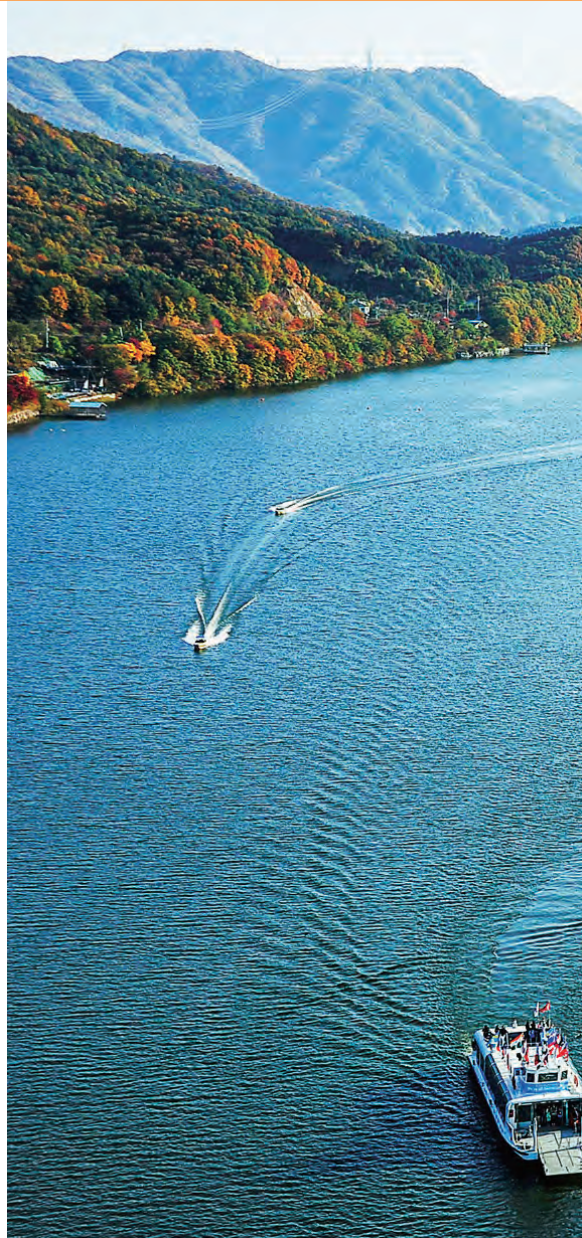


춘천시 남이섬

서울서 한 시간 작은 섬나라 나미나라공화국으로 ‘입국’하세요



‘나미나라공화국’을 표방하는 남이섬은 각국의 인사말로 ‘입국’을 환영한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이국(異國)이 있다. 대한민국 강원 춘천시 남산면 ‘나미나라공화국’.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드넓은 메타세쿼이아길, 울창한 숲속을 제멋대로 뛰노는 타조와 청설모는 이 나라의 명물. 자전거로, 나룻배로 흠길과 물길을 가르며 ‘고국’에 두고 온 근심을 날려버리는 일은 자연의 땅을 찾은 입국자의 특권이다. 이곳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나미통보)와 문자(나미짜), 우표를 경험하는 것 또한 여행의 묘미다. 쉬이 필요한 이들은 연중 언제고 방문할 수 있는 나미나라공화국 전용 여권을 발급해 때마다 입국도장을 찍는다. 서울에서 한강 동쪽으로 63km, 청평호수 위에 가랑잎처럼 떠 있는 이 작

은 섬나라엔 오늘도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남이섬’이다.

남이섬이 ‘나미나라공화국’을 선포한 건 2001년의 일이다. 동화작가이자 디자이너인 강우현 씨가 당시 연봉 100원에 대표직을 맡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는 싸구려 유원지 신세였던 남이섬을 탈바꿈하기 위해 상상의 나라를 세웠다. 쓰레기로 덮인 자연을 복원하고 버려진 소주병과 캔, 나이트클럽의 폐자재로 섬 구석구석을 꾸몄다. 공예체험과 전시회를 여는 등 갖가지 문화행사도 벌였다. 먹고 마시는 유원지는 이내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동화



남이섬은 강원 춘천시와 경기 가평군의 경계를 이루며 북한강에 떠 있는 반달 모양의 섬이다. 선박이나 무동력 집와이어를 타고 섬에 다다를 수 있다. 사진 춘천시

마을로 변신했다. 2010년엔 세계에서 14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 어린이친화공원에 선정됐다. 지금은 연중 33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여의도의 5분의 1 크기, 46만㎡, 둘레 5km의 땅은 발칙한 상상으로 ‘관광국’으로 거듭났다.

‘온사마’ 걸던 메타세쿼이아길서 유유자적

작은 섬이 무슨 ‘나라’냐고? 입국장에 들어서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인파의 외국인 관광객을 보고 있노라면 외국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2024년 1분기에만 이곳을 찾은 외국인은 44만 2000명. 지난해보다 약

68%(17만 9000명)나 늘었다.

남이섬에 입도(入島)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육지와 작별하고 바닷길을 가르는 상쾌함은 비행기 타고 하늘길 건널 때의 설렘 못지않다. 선착장까지는 서울에서 차로 가도 한 시간 남짓. 경춘선 전철이나 ITX-청춘 열차를 타고 가면 낭만까지 더해진다. 더욱 강렬한 첫 만남을 원한다면 집와이어(zip wire)로 섬에 다다르는 방법도 있다. 맨몸으로 줄에 매달린 채 아파트 25층 높이(80m) 상공에서 땅에서 섬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데 단 1분이면 된다. 호젓한 뱃길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달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지구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호수 위에 홀로



1 50년 된 키다리 나무가 늘어선 메타세콰이어길은 사시사철 외투를 갈아입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 타조와 공작새, 토끼, 청설모 등은 이곳의 인기 스타다. 3 패밀리자전거, 스토리투어버스, 모터보트 일주 등 레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4 남이섬에 잠든 남이 장군과 방문객의 풍요를 빌기 위해 열린 남이 장군 도당굿.

튼 남이섬이 반달 모양을 하고 있어서다.

이 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단연 메타세콰이어길이다. 초록 모자를 걸쳐 쓴 키 큰 나무들 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길은 그 자체로 볼거리, 놀거리다. 1970년대 초, 모래펄 땅 콩밭이었던 이곳에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가져온 묘목을 심은 것이 50년의 세월을 지나 도시민의 쉼터가 됐다. 울창한 고목들은 사진의 훌륭한 배경도 돼준다. 방문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 속에 추억을 저장하기 바쁘다. 특히 드라마 ‘겨울연가(2002)’의 두 주인공 ‘윤사마’와 ‘지우히메’가 사랑을 나누던 그곳에선 카메라 셔터소리가 더욱 바쁘게 들려온다. 엄청난 한류열풍을 몰고온 드라마 덕에 이곳을 찾는 이도 급격히 늘었다. 22년이 지나 드라마의 기억을 간직한 이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인공들이 만들던 눈사람 모형 앞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K-콘텐츠의 힘이다.

남이섬은 섬 전체가 하나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모든 길은 흙길로 이뤄져 있어 ‘부스럭’ 모래 밟는 소리가 계속 따라온다. 초입에 난 메타세콰이어길 외에도 잣나무

길, 겹벚나무길, 산딸나무길, 강변오솔길 등 온갖 종류의 나무 길이 형성돼 있는 덕에 어디로 가든 자연의 품이다. 또한 계절마다 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남이섬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사계절 모습을 모두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눈부시게 푸른 초여름 남이섬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황빛으로 물들 가을의 섬도, 새하얀 눈으로 뒤덮일 겨울의 숲길도 기억하게 된다.

타조·청설모 찾아 ‘숨은그림찾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은 이곳의 인기 스타다. 나뭇가지를 물고 댕다 나무 위로 올라가 집을 짓는 청설모부터 부챗살 같은 꼬리 깃털을 펴고 유유히 걷는 공작새, 잔디밭을 짹짹거리는 토끼는 숲에 생동감을 더한다. 특히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방문객들은 숨은그림 찾듯 동물들을 찾아다닌다. 다만 타조 가족만이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말썽을 부린 탓이라고, ‘짹타의 집’이라고 쓰인 팻말을 보며 방문객의 과자봉지를 탐하는 귀여운 짹패짓을 한 건 아닐까 상상을 해본다.

마냥 유유자적할 것 같은 남이섬에도 ‘하이텐션’의 순간은 찾아온다.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레저시설이 마련돼 있는 덕분이다. 커플자전거, 패밀리자전거는 기본이고 어린아이와 함께 탈 수 있는 베이비 전기자전거, 상공레일 위를 달리는 하늘자전거도 있다. 반려견과 타는 댕댕이 전기자전거도 준비돼 있으니 그 누구와도 즐겁다. 더욱 남이섬을 빠르게 ‘정복’하고 싶다면 무정차로 20분간 섬 외곽을 달리는 스토리투어버스를 타자. 걸어서 서너 시간을 돌아야 다 볼 수 있는 남이섬을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엔 수상레저도 빠짐없이 즐겨보길 추천한다. 플라이피시를 비롯해 바나나보트, 디스코팡팡, 허리케인 등은 이름처럼 짜릿하다. 이밖에 남이섬과 인근 자라섬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모터보트 일주코스, 노젓는 배 등도 준비돼 있으니 섬나라 여행을 제대로 만끽해보자.

섬에서 펼쳐지는 ‘굿판’... 연중 문화행사 풍성

세계 각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과 박물관, 각종 공예체험도 빠질 수 없다. 모두 즐기다 보면 하루 만에 이곳을 떠나기가 아쉽다. 이런 이들을 위해 섬 안에는 별장과 게스트하우스, 호텔도 갖춰놓았다.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호텔,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낀 별장 등 종류도 다양해 여행자는 그저 취향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된다.

한편 5월, 이곳에선 좀체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다. ‘남이 장군 도당굿’이 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 남이 장군(1441~1468)은 조선 전기 여진 정벌 등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역모의 누명을 쓰고 스물여섯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남이 장군 묘가 있는 남이섬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도당굿은 남이 장군과 이곳을 찾은 모든 이들의 태평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광객들도 가족의 안녕을 빌며 굿판에 참여해 어깨를 들썩이고 춤을 추는 장관을 연출했다. 남이섬은 전통축제인 굿을 이색관광 콘텐츠로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섬에서는 각종 문화체험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주말 공연이 1년 내내 펼쳐진다. 섬나라는 하루도 즐겁지 않을 때가 없으니 언제나 입국을 환영한다. 

글·사진 조윤 기자

“남이섬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사계절 모습을 모두 봐야 한다. 눈부시게 푸른 초여름 남이섬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황빛으로 물들 가을의 섬도, 새하얀 눈으로 뒤덮일 겨울의 숲길도 기억하게 된다.”

남이섬 이용법



사진: 남이섬

주소	경기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1024 남이섬 매표소
교통	경춘선 상봉역→가평역(약 50분) ITX-청춘 용산역→가평역(약 60분) 청량리역→가평역(약 42분) 셔틀버스 서울↔남이섬 직행버스 매 주말 및 공휴일 운행(문의 02-2038-0840)
입장료	일반(성인) 1만 6000원 1년 일반여권 5만 8000원(나미나라공화국 여권 소지자는 기간 내 무료 입장)
운영 시간	오전 8시~밤 9시(연중 무휴)
선박 운항	첫 배 오전 8시·마지막 배 밤 9시 (시간대별로 10분 또는 30분 간격 운항)
운영 시설	자전거 싱글·커플·패밀리자전거, 싱글·베이비·댕댕이 전기자전거, 하늘자전거 등(5000~1만 7000원) 모터보트 남이섬 및 자라섬 일주, 남이섬+자라섬 일주(1만~8만 원) 수상레저 플라이피시, 바나나보트, 디스코팡팡, 노젓는 보트 등(1만 5000~6만 원) 스토리투어버스 20분 소요, 8000원 투게더파크 10kg 미만 소형견 전용 무료 반려견 놀이터 *유모차(3000원) 및 휠체어(무료) 대여
문의	(031)580-8114, namisum.com

“일도 삶도 참을 수 없이 지루해요. 사라진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없을까요?”

Q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을까요?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노는 것도 예전만큼 마음이 설레거나 흥미롭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자기 계발서를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4년 동안 취업난인 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입사한 회사가 지금 이곳입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출판을 위해 작가를 섭외하고 책을 기획하고 출판까지 함께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하는 일이 참을 수 없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점점 기계적으로 일하며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종일 있어야 하는 직장에서 재미를 찾지 못하니 삶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에게 슬럼프가 찾아온 걸까요? 사라진 열정을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최현우·가명, 36)

독자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giyultv@gmail.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채택된 사연은
'신기울의 마음 상담소'
지면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A

열정이 식어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쓰며 하는 일도 시간이 지나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지 걱정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쌓이다보면 현우 님처럼 삶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느끼는 상황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숨어 있던 열정이 뿔어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이제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고 나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보듬어줄 두 번째 열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없어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느낄 때, 취업이 되지 않아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벌였는데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사업이 어려워질 때, 며칠 뒤에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등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간절한 절박함이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배고픈 맹수가 먹이를 쫓듯 놀라운 집중력과 실천력으로 밥 먹는 시간도 잊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절박한 열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허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목표를 이루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던 마음의 피로와 함께 상처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느껴야 하는 헛헛함도 커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 차갑게 식은 마음을 데워줄 두 번째 열정을 끌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정은 재생의 열정

두 번째 열정은 절박한 상황이 아닌 즐거운 몰입의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절박한 열정을 폭발하는 화산에 비유한다면 두 번째 열정은 한여름 태양의 뜨거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있어야 봄에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나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양의 뜨거움을 저는 재생(再生)의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재생의 열정은 별도의 보상이 필요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재생의 열정은 글을 쓸 때 일어납니다. 글쓰기는 제 직업이자 오래된 취미이고 습관이며 방전된 마음을 충전해주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재생의 열정은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허무한 마음이 들면 허무를 채워주고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 괴로운 마음이 들 때면 마음을 비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재생의 열정도 차갑게 식을 때가 있습니다. 글이 잘 써지지 않거나 미궁에 빠진 듯 정체된 느낌이 들 때, 공들여 쓴 글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것 같거나 혹독한 비판의 칼날에 직면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멈춤은 여름에 찾아오는 장마처럼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충만함과 성장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강렬해집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비춰주는 등대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현우 님이 요즘 느끼는 삶의 공허함은 지금까지 현우 님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성실함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랜 방황 끝에 선택한 낯선 길에서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 현우 님의 열정은 앞으로의 삶에 든든한 기반이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고 나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보듬어줄 두 번째 열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지쳐 있는 현우 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촉매가 될 것입니다. **K**



신기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신기울의 마음찾집'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맘' 교육센터장이다.

100만 그루 수국 섬으로 초대

전남 신안군 도초도 '섬 수국축제' 6월 20~30일

50여 종의 수국 100만 그루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섬 수국 축제'가 열린다. 축제가 열리는 도초면 수국정원은 19만 3232m² 규모로 전통정원, 지복숲, 수국센터, 수변정원, 팜파스그라스원,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제 기간에 마당극 '문순득 표류기'를 시작으로 프랑스 저글링, 필리핀 민속춤 등 국제 교류 공연과 서커스, 와인쇼, 국악 등 국내 공연이 펼쳐진다. 연계 전시로 수국을 주제로 한 한국 채색화 20점을 감상할 수 있는 안해경 작가의 초대전 '삶의 조각들'이 7월 31일까지 수국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또 신은미 작가의 '노거수 회화전'이 7월 3일까지 수국센터 2층 카페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수국 컬러링 엽서 체험 행사와 농수특산물 장터, 향토음식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운영한다. 성인 입장료는 6000원, 단 파란색 옷을 입고 오면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군인, 어린이는 무료다.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은 신안 남강선착장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한 후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수국공원



공연 영월 김삿갓, 노마드 시인 김병연

강원 영월군이 영월읍 관풍헌에서 시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 공연과 야시장을 연다. 먼저 김삿갓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영월 김삿갓, 노마드 시인 김병연'이 공연된다. 김삿갓이 전국을 돌며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또 야시장은 '문화 야(夜)시장'이란 이름으로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체험부스 등을 즐길 수 있다.

기간 6월 15일~8월 31일 매주 토요일

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 야외무대



공연 시간의 춤, 情을 나누다

우리나라 춤 100여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다. 전통춤, 신무용, 신 전통춤의 다채로운 구성을 기반으로 태평무(한성준제강선영류), 교방국거리춤(김수악제 김경란류), 장고춤(김백봉류), 소고춤(윤혜정 안무), 춘풍화무(임관규 안무), 여백(정혁준 안무), 구름검무(김경란류 장인숙 재구성), 부채춤(김백봉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기간 6월 29일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전시 빛의 시아터 :

베르메르부터 반 고흐까지

요하네스 베르메르, 렘브란트 반 레인, 빈센트 반 고흐 등 네덜란드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빛과 음악,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해석한 몰입형 예술전시다. 총 12개 시퀀스로 구성되어 35분간 상영되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음악과 작품에 둘러싸여 작품 안을 여행하는 듯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기간 ~11월 24일

장소 워커힌 호텔앤리조트 지하 1층 빛의 시아터

피플 | '스타워즈' 시리즈 통해 할리우드 진출한 배우 이정재

“그동안 스타워즈와는 다른 제다이 보여줄 것”



조원근 기자

배우 이정재가 전설적인 SF 시리즈 '스타워즈'의 스피노프(번외작) 버전인 '애콜라이트'에서 아시아인 최초 제다이라서 존재감을 뽐냈다. 제다이는 '스타워즈' 세계관의 중심을 담당하는 마스터로 이정재는 강력한 포스를 지녔지만 마음은 따뜻한 제다이 '마스터 솔'을 연기했다. 드라마는 이정재를 통해 동양식 제자 수련 장면을 그려냈다. 제다이 힘의 근원인 포스는 동양 사상의 기(氣)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정재는 그 포스를 통해 동양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정재는 6월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줄 알았다.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졌으니 적당한 역할을 줘서 참여시키는 정도였지라고 생각했는데 역할을 듣고 놀랐다”면서 “(시나리오를) 읽어보니 완전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라 더 놀랐다”고 밝혔다.

이정재는 자신이 맡은 '마스터 솔' 캐릭터를 연기한 소감에 대해 “지금까지의 '스타워즈' 시리즈 중 가장 오래된 과거로 설정돼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 정형화된 제다이보다는 두려움, 안타까움 등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지금까지의 제다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결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애콜라이트'는 6월 5일 공개 이후 닷새간 전 세계에서 총 1110만 회의 시청 횟수를 기록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의 올해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서경리 기자



저자 이슬비(길벗)

도서 한 달에 10만원 도시락 만들기

고물가 시대, 한 달에 10만 원으로 20개의 점심 도시락을 만드는 요리 인플루언서 '비야도시락'의 194가지 레시피. 일주일에 한 번 밑반찬 5가지를 만들어두고 매일 아침 혹은 전날 저녁 간단하게 메인 메뉴 한 가지를 만들면 도시락 준비는 끝이다. 도시락 메뉴뿐 아니라 저녁 식사로도 손색없는 다양한 메뉴를 담았다.



저자 이של기(오월의봄)

도서 엄마라는 이상한 세계

“공감하는 엄마가 돼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라”, “다 엄마 탓이다”. 엄마가 되는 순간 들려오는 주변의 목소리다. 육아는 어쩌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졌을까? 책은 엄마이자 교육학을 공부한 저자가 엄마를 향한 명령들에 대해 던지는 질문을 담고 있다. 엄마라는 이상한 세계의 한복판에서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온 한 여성의 서사다. [K]

서경리 기자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수국이 피는 계절을 맞아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 수국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탐스럽게 핀 수국들이 반겨주더군요. 해변부터 언덕 위까지 수국이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수국과 함께 사진도 찍고 여유를 즐겼습니다. 수국동산과 이어지는 명사해수욕장도 호젓하니 걷기 좋았어요.

강문식 부산 영도구

공감 칭찬합니다!



758호 30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산보훈병원 옆에 부산요양병원이 새로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물리치료가 병실로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다니 정말 세심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요양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유용한 시설이 될 것 같네요.

박희진 부산 금정구



757호 입양부모이자 반면견 입양교육 강사인 전성신 씨의 기사를 읽으며 남의 아이라서 성향이 어떨지 알 수 없고, 아이를 입양하는 건 무조건 힘을 거라고만 여겼던 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입양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주는 양부모의 사랑의 힘이아말로 아이를 자존감 있게 자라게 해주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바꿔준 이 기사를 칭찬합니다.

강화연 서울 동작구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_pr

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6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공모주제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K-Digital Training을 통한
취·창업, 이·전직 등의 **성공사례**

공모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naeilcard.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이메일·방문접수 불가

공모부문

각 부문별 참가신청서, 공모양식, 제출서류는 공모전 홈페이지 내

공모전 소개 및 유의사항 확인 **必**

부문	수량 및 형태
수기	1~3장 분량의 수기 1편 (참가신청서 내 작성하여 제출)
이미지	웹툰, 카드뉴스 등 이미지 10장 내외 (900px이상, PNG, JPG 파일을 압축하여 별도 제출)
콘텐츠	
영상	1~5분 내외 영상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로 게재 후 참가신청서 내 링크 제출)

공모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7월 14일(일)** / 5주간
※ 수상작 발표 : 8월 30일(금)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시상 내역

총 상금 **1,2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여

수기·콘텐츠	인원	상금	비고
대상	1명	200만원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	2명	150만원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	4명	100만원	고용노동부 장관상
장려상	7명	20만원	-
입상	16명	10만원	-

※ 심사 결과 작품 수준 등을 고려, 수상 내역 변동 가능

※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독점적 사용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게 됨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10:00~17:00(평일) *점심시간 12:00~13:30

☎ 02-6933-4689 ✉ naeilcard_contest@naver.com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2024. 6. 1. ~ 7. 15. (45일간)



착!착!착!
나눔캠페인

생활 속 기부 참여로
온 국민의 행복한 여름 나기

QR코드 기부



ARS 기부 060-702-1004

기부상담 080-890-1212

문자기부 #9004

참여 계좌 : 신한 100-026-250254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